

전북문화살롱

발행처 | 전북문화살롱 제작 | 신아출판사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 전화 | 063)275-4000 이메일 | jbmunhwasi@daum.net



● 살롱 갤러리 | 조경단 | 장지성(전주교대 교수)

기획특집 : 백두대간 서쪽의 유일한 가야왕국, 반파

장수가야는 1,500년동안 장수의 땅 속에서 가야가 숨을 쉬고 있었다. 계곡을 걷고 산에 오르고 가야 유적의 숨결을 찾아서 문헌과 고고자료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노력 끝에 반파국(伴跛國)을 찾았다. 반파국은 장수·장계에 있었다. 이제 장수가야가 아닌 반파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한다. 여기에서 반파국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전북문화살롱 5월호에는 『백두대간 서쪽의 유일한 가야왕국, 반파』라는 기획특집을 꾸몄다.

1. 장영수 군수와 함께하는 반파 이야기 - 장영수 (장수군수), 송화섭 (중앙대학교 교수), 박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2.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3. 1,500년 전 가야 봉수왕국, 반파국 - 박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4. 반파국 지배자의 무덤 - 전상학 (전주문화유산 연구원)
5. 장수가야 방어의 핵심, 삼봉리 산성 -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6. 철 문화의 보고寶庫 장수군 -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7. 반파국으로 빛나는 빨간 장수 - 최재원 (장수군 문화체육관광 과장)
8. 천오백년을 넘어온 파란의 시그널 - 박진희 (장수가이지킴이, 초록누리협동조합 이사장)
9. 전북 가야문화유산 학술연구의 새로운 전환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역할 - 소재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장영수 군수와 함께하는 반파 이야기 | 좌담회 |

장영수 장수군수

송화섭 중앙대학교 교수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송화섭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백제, 신라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가야문화권에 편입된 여러 지역에서 가야사 관련 조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가야의 소국이 있었고, 그 중심이 장수였다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수에 존재했던 가야의 소국이 문헌기록상 백제와 자웅을 겨뤘던 반파국(伴波國)으로 비정되고 있지요.



장영수(장수군수)

이와 관련하여 장영수 장수군수님과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반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장영수 : 최근 제가 한 언론의 칼럼을 통해 장수가야를 반파국으로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학자들이 발로 뛰면서 유적과 유물로 증명해 온 장수지역의 가야문화, 예를 들자면, 고분, 봉수, 제철유적 등은 그 역사적 가치가 탁월할 뿐 만 아니라, 장수군에 강력한 가야 소국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봉수는 가야문화권 전체를 통틀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문헌기록상 가야계 소국인 반파가 백제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봉수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수가야가 반파국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는 지역의 가야사 연구자들이 꼭 풀어 줄 거라 믿습니다. 다만,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감히 반파국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송화섭 :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영남의 화합과 균형 있는 연구를 통해 가야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남에 치우쳐 있던 가야사 관련 연구 및 조사가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특히 가야계 소국인 반파로 비정되고 있는 장수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관련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 모습

장영수 : 우리 장수군의 군정지표 중 하나가 생동하는 장수가야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반파국으로 가는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꾸준한 조사와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봉화산에서 침령산성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민들로 하여금 반파국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로, 장수 동촌리, 백화산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가야 지배자 무덤과 산성, 봉수 등에 대한 꾸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반파국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알려진 철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장수군입니다. 확인된 유적만 100여 개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 제철산업의 융성을 통해, 장수군에 있었던 반파국이 강력한 소국으로 발전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송화섭 : 장수가 산골짜기이기는 하지만,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지금도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지요. 이처럼 잘 갖춰진 교통로를 통해 철을 매개로한

주변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것이 결국 반파국이 강력한 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장수군에 터를 잡았던 반파국, 그 위상은 어떠했는지요?

곽장근 :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시 철의 생산과 유통이 반파국 발전의 핵심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입니다. ‘철을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지요. 가야의 전체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입니다. 장수 남양리 유적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출토되었지요. 현재까지 제철유적이 학계에 가장 많이 보고된 곳도 역시 장수군입니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반파국 국력의 원천이 철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철의 생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국력을 대변해 주는 유적이 바로 봉수입니다.

봉수는 고대 사회의 광통신망으로서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하죠,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 발견된 봉수는 110여 개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봉수들의 종착지가 바로 장수입니다. 문헌기록 상 가야계 소국이었던 반파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봉수를 운영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장수군이 반

파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당시 강력한 고대국가였던 백제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반파국의 국력과 위상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 철이 있었던 것이지요

장영수 : 지리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배꼽이 바로 장수입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가 모두 배꼽을 지나가듯이 장수는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길목이자,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 역사적으로는 백제와 가야, 신라를 이어지는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이 작용하여 철의 유통망이 구축되었고, 봉수로 대변되는 광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곽장근 : 봉수는 국가의 존재와 국력을 증명하고 국가의 영역을 대변해 주는 유적입니다. 충남 금산, 전북 남원·원주·진안·순창 일대에서 시작된 봉수가 장수에 모인다는 것은 당시 봉수를 운영했던 반파국의 영역이 매우 넓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송화섭 : 최근 장수 동촌리 가야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지요. 장수군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지배자 무덤, 산성, 봉수, 제철유적 등 가야 관련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적들도 학술 고증을 바탕으로 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수 : 유적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술 고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군민들과 도민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군수로서 향후 학자들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과 군민들에게 반파국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군수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장수군에서 침령산성과 함미산성, 삼봉리 산성 등

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성은 국가 방어체계의 핵심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철을 두고 백제와 자웅을 겨뤘던 반파국의 국력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지요.

그동안 가야사 연구와 조사는 영남지역에 편중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대가야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역사복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야사 국정과제를 통해 던진 화두는 분명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을 통해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가야라는 한 울타리 안에 대가야, 금관가야, 호남의 반파국, 기문국 등이 존재했었다는 인식 속에서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배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섭 : 군수님 말씀처럼, 그동안 가야 관련 행정 지원이 영남지역에 집중되던 것은 사실이죠. 영남지역은 가야 영역권 어디에 가더라도 박물관, 전시관을 비롯하여 잘 정비된 고분 등 시각적으로 가야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북의 경우에는 이제야 고분 몇 기를 복원해 놓은 것이 다지요. 앞으로 반파국이 장수군이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장영수 : 우리 장수군이 호남 최초로 가야 홍보관을 열었습니다. 아직 초라하기는 하지만, 장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보관을 업그레이드 한 가야 역사관을 조성하고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편자(말발굽)를 이미지화 하여 장수군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가고 있지요. 장수군 모든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 브로치(의복에 핀으로 고정하는 장신구)가 바로 편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축제를 활용한 반파국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대표 축제인 '한우랑 사

과랑 축제'를 올해부터는 '한우랑 사과랑, 가야랑'이란 타이틀로 변경하고, 반파국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파국의 독창적 문화유산인 봉수를 내세운 축제 개발, 조형물 제작 등의 홍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화섭 : 군수님을 비롯한 장수군 공무원들이 편지를 차고 계시는 것을 보니, 반파국 역사복원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지역의 역사를 찾고 알리는 데 지역 주민들의 역할과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산학연' 말이 있지요

장영수 : 반파국 역사복원에 대한 군민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야의 지배자 무덤이 밀집된 동촌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나서 마을 이름을 '동가야 마을'로 바꾸었습니다. 최근 장수를 찾은 문화재청장도 이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 근래 들어 장수군에는 가야의 역사를 지키고 알리자는 시민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야탐사단, 가야 역사 지킴이 등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야문화 답사 및 강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지역의 가야 관련 전문가는 물론, 우리군 가야문화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진정한 의미의 '관산학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송화섭 : 장수군이 반파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노력 뿐 아니라,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수군에 있는 가야 관련 유적들의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라북도와 장수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수 : 영남지역의 경우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우리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가야는 이제 잠에서 깨어난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



간담회 후 기념촬영(좌측부터 곽장근, 장영수, 송화섭)

럼에도 그 학술적 가치와 위상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 지원에도 우리 장수군은 군정을 담아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에 재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앞으로는 우리 장수군 뿐 아니라, 남원, 임실, 진안, 무주, 완주, 순창 등 전라북도 가야문화권 지자체들이 하나 되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서 전라북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화섭 : 지금 군수님께서 전라북도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장수군 뿐 아니라, 전라북도 가야문화권에 속한 지자체와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수 : 현재 우리나라에 가야 연맹체 시장·군수 협의

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체 자체가 너무 크고,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위시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와 조사가 미진한 전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전북은 물론, 전라남도까지 포함한 가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유적 조사 및 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취지에 걸맞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라북도 현실을 맞는 국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야사 관련 연구자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화섭 : 최근 장수군과 가야사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반파국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반파국의 위상, 어느 정도였는지요?

곽장근 : 최근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삼고리 고분군에서 가야 전체 영역의 토기뿐 아니라, 한강 이남의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되었지요. 한마디로 가야 토기 박물관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반파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경제는 물물교환 방식이잖아요. 장수군에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토기에 담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장수군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장수군에는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일지역에서 그 밀집도가 가장 높지요. 고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알려진 철은 그 자체로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질 높은 특산품을 가지고 생산지를 직접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의 생산과 교역을 통해 반파국이 강력한 가야 소국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봉수와 산성을 운영했고, 240여기의 대형 고총을 남길 수 있

던 것입니다.

송화섭 : 곽 교수님 말씀처럼 장수군에는 제철유적을 비롯한 고분, 산성, 봉수 등 가야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국정과제 수립 이전에 비해 활발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사실이죠. 앞으로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곽장근 : 전라북도 가야 유적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장수 동촌리 고분군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2곳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지정되었지요. 유적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한 고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군 단위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문화재 지정입니다. 전라북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조사 연구는 물론 정비·복원, 활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가야사 국정과제 이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발굴조사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적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학자들의 몫이기에 저를 비롯한 가야사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섭 : 문화유산의 학술 고증, 정비·복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화유산의 트렌드는 보호중심주의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요. 다시 말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에서 체험하고 머무르는 것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일반인들은 특정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장수군 역시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장수군청 로비에 설치된 가야유물 조형물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령과 김해 등 영남지역의 가야 유적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되는 데에는 무려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곳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 역시 20여 년 동안의 준비가 있었지요. 이에 비해 우리 장수군은 이제 반파국으로 가는 첫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우선은 학술고증을 통한 문화재 지정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활용 전략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이자,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등을 끼고 있는 금강, 섬진강, 남강의 분수령으로서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과, 한우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말 산업을 통한 체험거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논개로 상징되는 충절의 고장이고도 하지요. 이처럼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들이 철의 왕국, 반파국과 만났을 때 이뤄낼 관광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면 체하듯이 켜걸음으로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의 관광 포지션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 중심의 군으로 성장해 왔

습니다. 이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경주와 전주가 그러했듯 2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철의 왕국 반파국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열정적으로 말이죠.

송화섭 : 오늘 장영수 장수군수님과 객장근 군산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장수에 존재했던 철의 왕국, 반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파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군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영수 : 그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반파국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마을 이름을 ‘동가야 마을’로 바꾸고, 가야 지킴이, 가야 탐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하여 천 오백년 동안 잊혀졌던 반파국의 역사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군민들의 열정, 하나하나를 가슴에 되새기며,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파국 역사복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 머리말

가야(伽倻)하면 남강을 포함한 낙동강 서안(西岸)의 경상북도 서편과 경상남도 전역을 아우르는 범위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어김없이 가야토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근자에는 『일본서기』 계체 6년 조에 적힌 임나사현(任那四縣)인 상다리(上多利)·하다리(下多利)·사타(婆陀)·모루(牟婁)의 위치가 새롭게 조명되었다(‘多’는 음이 ‘치’지만, 『일본서기』 음가에 의미를 부여해 ‘다’로 표기했다). 상다리는 여수 구도심, 하다리는 여수 돌산, 사타는 순천, 모루는 마로현(馬老縣)이었던 광양에 비정된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 가야의 서계(西界)는 기존의 범위를 켄충 뛰어 넘었다. 서로는 전라북도 임실과 순창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선이었다.

물적 근거를 통해 가야 권역의 확대를 읽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가야는 어디까지나 문화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가야 안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포진했다. 경상남도 서부해안 포구를 거점으로 한 포상팔국(浦上八國)은 물론이요, 함안의 안라(安羅)와 고성의 고자국(古自國), 고령과 김해의 가라(加羅) 등 여러 세력이 공존하였다. 분명한 것은 가야는 단일한 연맹체도 아니었고, 통합되지도 않았다.

동일 문화권 가야에 속하면서 정치적으로 행보를 함께 하는 경우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포상팔국처럼 지역의 이해에 따라 소국 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뒤늦게 가야에 흡석한 전라북도 동부 지역도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소국 연합체를 구성했던 것 같다. 장수군에서만 무려 250기의 고총고분(작경 20m 이상) 조성은

강력한 힘의 존재와 구심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수가야’ 이름을 부여한 것은 지극히 온당했다. 그렇다고하여 한시적인 장수가야 호칭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시급히 본명을 찾아내는 작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장수가야 중심의 정치체 이름을 역사서에서 발견하여 운동력과 비중을 살펴 보고자 했다.

장수가야와 부합하는 정치체로 반파국(伴跛國)을 지목할 수 있다. 반파국은 역사서에서 6세기 초라는 짧은 시점에서, 그것도 섬진강 수로(水路) 등의 장악과 관련한 국제 분쟁 속에 반짝 등장하다가 사라졌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일층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파국이 장수가야일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다 큰 공감을 얻고자 했다.

2. 반파국의 등장

반파국은 백제 무령왕대(501~523)인 『일본서기』 계체 7년(513)·8년(514)·9년(515) 조에서 보인다. 그 밖에 520년대에 제작된 「양직공도(梁職貢圖)」에서는 백제 곁의 소국 명단에 ‘반파(叛波)’로 적혀 있다. 『일본서기』에 수록된 관련 기록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인 관계로 국한문 병기(併記)를 지양했다.

a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반파국이 띤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얹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판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체 7년 6월 조).

b 冬 11월 辛亥朔 乙卯에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 將軍, 斯

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巳奚 및 賁巴委佐, 伴跛의 既展奚 및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恩勅을 奉宣했다. 그리고 己汶·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 이 달에 伴跛國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애걸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계제 7년 11월 조).

c. 3월에 伴跛가 子呑·滯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했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했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였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베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계제 8년 3월 조).

d. 春 2월 甲戌朔 丁丑에 百濟가 使者 文貴 將軍 등이 귀국하려고 청했다. 이에 勅하여 그 아래 物部連(闕名)을 딸려서 돌아가도록 보냈다[百濟本記에서는 物部至至連라고 한다]. 이 달에 沙都島에 이르러, 전하는 바를 들으니 伴跛人이 (倭)에 원한을 품고 毒을 부리는데, 강한 것을 믿고 포악한 일을 자행한 까닭에, 物部連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곧바로 滯沙江에 들어왔다. 文貴 將軍은 신라에서 돌아갔다. 夏 4월에 物部連이 滯沙江에 6일간 머물렀는데, 伴跛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들이 닳쳐서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帷幕을 모두 불질렀다. 物部連 등은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汶慕羅[문모라는 섬 이름이다]에 배를 대었다(계제 9년 조).

e. 夏 5월에 백제가 前部 木笏不麻甲背를 보내 己汶에서 物部連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引導해서 入國했다. 群臣이 각각 衣裳·斧鐵·帛布를 내어놓고, 國物을 보태 넣어서, 朝廷에 쌓아 두고, 은근하게 위문했다. 賞과 祿이 보통보다 많았다. 秋 9월에 백제가 州利郎次 將軍과 그 아래인 物部連을 보내와서 己汶의 땅을 내려준 데 대해 사례했다(계제 10년 조).

f. 3월에 백제 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말하기를 “대저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섬의 돌출부를 피할 때 마다[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물가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美佐禰라고 한다]

風波에 고달픉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을 적시고 모두 파괴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加羅 多沙津을 臣이 조공하는 津路로 삼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押山臣이 듣고 아뢰기를 청했다. 이 달 物部伊勢連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나루를 백제 왕에게 내렸다. 이에 가라 왕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나루는 官家를 둔 이래, 臣이 조공하는 나루입니다. 어찌 쉽게 바뀌어서 이웃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역을 한정해, 封해준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앞에서 (다사진을) 주기가 어려워, 물러나 大島로 돌아왔다. 별도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加羅가 신라와 結儻해 일본을 원망했다(계제 23년 조).

513년에 반파국은 백제 영역인 기문의 땅을 약탈했다고 한다. 기문은 백제의 동편이며 반파국과의 접계(接界)에 소재했음을 알려준다. 기문은 대략 섬진강 유역 구간이나 남원(南原)으로 비정되고 있다. 반파국은 백제가 영유권을 내세우는 기문을 점령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백제 무령왕이 왜왕에게 호소하였다. 반파국의 강성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다.

기문 지역 회복을 위해 백제·신라·안라에서는 왜에 사신을 보냈다. 이에 질세라 반파국에서도 2명의 수석 사신을 함께 왜에 파견했다. 백제 대표인 저미문귀 장군은 오경박사 단양이와 함께 513년 6월에 왜 조정에 도착하였다. 저미문귀 장군은 반파국이 빼앗은 기문의 땅을 되찾기 위해 왜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 그는 515년 2월에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할 때까지 기문 회복 문제에 전력투구하였다. 저미문귀의 저미씨는 475년에 백제 한성 함락 직후 문주왕이 웅진성으로 남하할 때 동행했던 조미걸취(祖彌架取)의 조미씨와 동일한 가문으로 보인다. 웅진성 천도에 공을 세운 가문의 저미문귀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백제가 실지 회복에 거는 비중을 읽을 수 있다.

왜 조정은 기문과 체사(滯沙)를 백제의 소유로 인정해 주었다(b). 이 영토 분쟁은 가락국 수로왕이 음집벌국과 실직곡국 간의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여 중재한 사건을 연상시킨다. 반파국이 점령한 지역에는 기문 뿐 아니라 체사까지 포함되었던 것 같다. 체사와 대사(滯沙)가 동일한 지

역이라면 섬진강 수계 장악을 위한 분쟁인 것이다. 그러자 반파국도 진보(珍寶)를 왜에 보내 기문에 대한 영유권을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했다.

반파국이 빼앗았다는 기문 지역 반환을 위해 백제 뿐 아니라 신라와 안라까지 가세했다(b). 그러니 여러 나라의 이해가 함께 걸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반파국은 점령한 기문에서 손을 떼는 과정을 밟게 되는 듯 했지만,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했다. 봉후와 저각을 두어 일본에 대비하였다(c)”고 했다. 여기서 반파국이 성을 쌓은 대사와 백제의 소유로 돌아간 체사(b)는 별개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대사와 체사가 동일 지역이라면, 반파국은 백제와 왜의 간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결 국면으로 나간 것이다.

반파국은 백제 편을 들어준 왜의 침략을 차단할 목적으로 축성과 봉수 체계를 갖추었다. 반파국이 축성한 대사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이였다. 반파국은 섬진강 하구를 장악한 것이다. 반파국의 영역과 세력권을 가늠해 준다. 그리고 왜와의 결전을 준비한 반파국은 513년 당시 백제와 동맹관계였던 신라의 촌락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c). 반파국은 섬진강 하구를 이용해 신라 해변의 촌락을 기습적으로 약탈한 것이다.

515년에 저미문귀 장군은 왜군의 호위를 받아 섬진강을 통해 귀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파국의 굳건한 방비로 인해 왜군은 패하였고, 저미문귀 장군도 신라를 경유하여 겨우 귀국할 수 있었다. 반파국의 강성을 읽을 수 있다.

3. 반파국과 가라는 동일한 정치체인가?

529년에 백제 성왕은 항로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라의 다사진을 확보하고자 했다(f). 대사와 동일한 다사진은 섬진강 하구의 하동향을 가리킨다. 이 때도 왜는 백제 편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가라 왕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신라와 결당하여 왜에 대항하려고 했다. 다사진 지배와 관련해 백제와 가라의 충돌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백제와 충돌했던 반파국은 515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d). 대신 백제와의 충돌 현장인 다사진의 소유

국으로 가라가 등장했다(f). 이를 근거로 반파국과 가라는 동일한 국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b의 ‘반파 기전해(계체 7년 11월 조)’는 ‘가라 고전해’(흥명 2년 4월 조)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양자 간의 시점은 513년과 541년으로 시차가 무려 28년이나 된다. 그럼에도 기전해와 고전해 모두 ‘고텐게이(こてんけい)’로 읽혀지므로 동일한 인물이고, 이들의 국적인 반파와 가라 또한 동일한 국가로 단정했다.

그러나 가라가 반파를 병합했다면 고텐게이의 국적은 달라진다. 일본에 병합된 조선인들의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해 본다. 발해인 배구(裴虆)는 907년과 919년 총2회 일본에 사신으로 왔었다. 발해 멸망 직후인 929년에 그는 동단국(東丹國) 사신으로 다시 일본에 왔다. 이 때 그는 “발해가 이미 멸망하여 동단국의 신하가 되었다”고 했다. 이 같은 국적 변동이라는 변수도 있다. 따라서 반파와 가라를 동일 국가로 단정하는 일은 속단일 수 있다.

실제 『일본서기』 주석서인 『석일본기(釋日本紀)』에서는 “다리국(多利國)·반파국(伴波國): 양국은 임나국의 별종(別種)이다”고 하였다. 『일본서기』를 보면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가라국·안라국·사이기국·다라국·졸마국·고차국·자타국·산반하국·걸손국·임례국 합해서 10국이다(흥명 23년 조)”고 개괄했다. 전성기의 임나제국은 이 보다 훨씬 많은 소국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다리국과 반파국은 임나에 속하지만 별종이라고 했다. 분명히 반파국은 임나에 속한 가라국과는 별개의 정치체로 인식되었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반파국을 가라와 등치시킨 논자들은, ‘반파’는 가라의 비칭이자 멸칭이라고 했다. 가라에 대한 타칭으로 반파국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타칭설은 현재까지 통설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반파국에 대한 표기인 ‘伴波·叛波’는 비칭과 멸칭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반파를 가라에 대한 비칭이나 멸칭으로 인정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주지하듯이 비칭은 원래 음가를 살짝 비틀어서 악의적인 뜻을 넣는다. 가령 「광개토왕릉비문」이나 「모두루묘

지와 같은 당대 금석문에는 고구려 시조 이름을 추모(鄒牟)로 표기하였다. 670년 문무왕의 안승에 대한 책문(冊文)에는 중모왕(中牟王: 『삼국사기』문무왕 10년 조),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는 중모왕(仲牟王: 天智 7년 조)이라고 했다.

주몽(朱蒙) 표기의 최초 사례는 북위의 역사를 수록한 『위서(魏書)』였다. 주몽은 추모(鄒牟)나 중모(中牟·仲牟)와 음이 닮았다. 그러나 편휘된 의미를 담고 있다. 주(朱)는 ‘난쟁이[侏]’ 또는 ‘어리석다’·‘어리다’의 뜻이다. 몽(蒙)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동몽(童蒙)의 ‘蒙’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몽은 ‘난장이’와 ‘어린애’의 뜻을 지닌 고구려 시조 이름에 대한 비칭이었다. 후손이라면서 ‘주몽’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중국 역사서에서의 악의적인 표기는 더 많다. 가령 고구려에서 원시적 소국을 나타내는 ‘나(那)’나 ‘양(壤)’을, 종을 가리키는 ‘노(奴)’로 표기하여 비하시켰다. 여기서 분명한 원칙이 보인다. 비칭이나 편칭도 원음(原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구려 국호에 대한 비칭은 ‘下句麗·句驪·句麗·駒麗’로 나타난다. 공식 국호인 高句麗를 살리면서 비틀어서 표현했다. 누구라도 ‘下句麗·句驪·句麗·駒麗’가 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백잔(百殘)이라는 멸칭으로 일컬었다. 역시 백제 국호에 대한 멸칭임을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종족 호칭을 이용한 박(狛)이나 예맥(穢貊·穢貊) 등도 고구려에 대한 비칭이자 멸칭이었다. 그런데 ‘반파(伴波·叛波)’는 도시 가라(加羅)와의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누가 반파를 통해 가라를 연상할 수 있을까? 가라는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당시 국호였다.

4. 반파국이 장수군인 물증

반파국은 백제 뿐 아니라 왜나 신라 등과도 싸웠던 강성한 세력이었다. 반파국 강성은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되는 제철 산업은 물론이고, 일정한 영역 확보와 더불어, 교류에 긴요한 요진(要津)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반파국이 장수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① 반파국은 섬진강 하구, 남원 일대를 포함한 지역권을 석권하고 있었다. 반파국의 세력권을 암시해주는 물증이 봉수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곳에 이르는 봉수체계는 동으로 함양과 연결되는 육십령과 치재 이남, 서로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남으로는 임실을 넘어 순창 방면과 백두대간 운봉 이남 구례, 북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과 논산 이남 및 익산 동쪽까지 미치고 있다. 반파국이 국가 생존 차원에서 봉수를 운영했을 때 그 대상은 자국을 위협하는 백제였다. 그런데 왜의 위협에 직면하자(㉔), 반파국은 ‘봉후와 저각’을 침공로인 대사강 즉 섬진강의 중류 이남까지 확대시킨 의미로 해석된다. 차후에 조사가 확대된다면 확인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파국이 국가 방어체계로서 봉수 신호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한다. 반파국이 기문과 다사진을 점령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장수군 중심의 봉수 유구는 대가야 본부인 고령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봉수지에서는 가야 토기들이 출토되었고, 한 곳의 구심을 향해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다. 봉수 체계의 중심에 소재한 장수군은, 봉수 설치 주체인 반파국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다(㉕).

② 장수군은 제철산업과 고총고분의 중심지였다.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제철산업이라면, 고총고분은 강대한 지배자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무려 250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조영되었다.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을 보호한 편자(鞭子)가 출토되어, 장수 일원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음을 알 수 있다. 금강상류 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 일대는 한마디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왕국이었다. 백제나 왜 그리고 신라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었던 것이다.

③ 반파국을 다리국과 더불어 ‘임나국의 별종’이라고 했다. 임나제국 즉 가야 세력권의 변두리에 소재한 데다가 늦게 합류했기에 생겨난 인식이었다. 반파국은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하여 6세기 초기에는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

장수 지역 정치체와도 시점상으로 부합한다.

5. 반파국=장수설의 점안(點眼)

반파국(伴波國)과 반파(叛波)는 백제가 붙인 비칭이었다. ‘파(波)’는 ‘절뚝발이 파’, ‘기대설 피’의 뜻과 음을 지녔다. ‘반(叛)’은 ‘배반할’의 뜻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러한 뜻의 국호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국호와 발음이 비슷하면서 악의적으로 나쁜 뜻이 담긴 글자를 붙인 게 ‘반파(伴波·叛波)’였다. 백제를 백잔(百殘)으로 일컫는 식이었다. 그러면 장수 일대의 백제 때 지명을 『삼국사기』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살펴본다.

벽계군: 본래 백제 백이[혹은 백해]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계현인데, 영현은 2개이다(壁谿郡 李百濟伯伊一作海郡 景德王改名 今長溪縣 領縣二).

진안현: 본래 백제 난진아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鎭安縣 李百濟難珍阿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고택현: 본래 백제 우평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수현이다(高澤縣 李百濟雨坪縣 景德王改名 今長水縣).

벽계군은 장수군 계내면(溪內面), 진안현은 진안읍, 고택현은 장수군 장수읍으로 지정되고 있다. 여기서 벽계군은 백제 때 백이군(伯伊郡)이었지만 백해군(伯海郡)으로도 일컬었다. 백해(伯海)의 ‘伯’은 자전(字典)에서 ‘만 백’·‘길 맥’·‘우두머리 패’의 뜻과 음인데, 모두 좋은 뜻을 지녔다. 그러한 백해의 ‘백(伯)’ 음을 비틀었다면, 악의가 담긴 글자인 ‘배반할’ ‘반(叛)’ 자가 나올 수 있다. 백제 입장에서는 강성하여 자국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반(叛)’ 자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海)’는 뜻을 취하여 ‘파(波)’로 변개한 것 같다.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본다. 우선 『삼국사기』직관지에서 “(관동의) 네번째를 파진찬(波珍湊)이라고 한다. 혹은 해간(海干)이라고도 하고, 혹은 파미간(破彌干)이라고도 한다”는 기사를 주목한다. 여기서 ‘파’로 읽는 ‘波珍’은 ‘海’의 훈독이다. ‘진(珍)’은 ‘돌’ 즉 ‘돌[石]’로도 읽었

다. 가령 백제의 珍惡山縣을 석산현(石山縣)으로 바꾸었다. ‘珍’과 ‘石’이 대응한다. 광주 무등산은 본래 武珍岳이라고 했다. 역시 ‘등’ 즉 ‘돌’과 ‘진’은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해(伯海)는 ‘伯波珍’ 즉 ‘백파돌’로 불리었을 수 있다. 3음절 가운데 앞의 2음절 ‘백파’를 비틀어서 ‘伴波(叛波)’로 표기했을 수 있다. 더욱이 『전운옥편(全韻玉篇)』에서는 ‘伯’의 음가를 ‘파’로 적었다. 그렇다면 伯海의 발음은 ‘파해’이다. ‘파해’는 『일본서기』에서 伴波의 음가인 ‘하해(ハヘ)’와 음사(音似)하다. 『일본서기』에서 안라(安羅)는 ‘아라(アラ)’, 가라(加羅)는 ‘가라(カラ)’로 음을 적어 놓았다. 안라에 대한 ‘아라’ 음은 아라국(阿羅國)의 ‘아라’와 동일하다. 『삼국유사』에서 ‘阿羅伽耶’라고 한, 그 ‘아라’와도 음이 같다. 게다가 加羅에 대한 ‘가라’ 음은 우리가 현재 일컫는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하해’ 음가는 존중할 수 있다.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伯海의 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해’와 연결된다. 게다가 탁음(濁音)을 붙이면 ‘ハハ’ 즉 ‘파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우술군(雨述郡)을 비풍군(比豐郡)으로 고친 것을 통해 『삼국사기』권36, 지리3, ‘雨’와 ‘비’의 대응 관계가 확인된다. 장수군 장수읍을 가리키는 우평현(雨坪縣)의 ‘雨坪’도, 훈과 음을 섞으면 ‘비평’이다. ‘비평’은 ‘반파’와 음이 서로 닮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반파국의 소재지를 장수군으로 지목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제는 편칭이나 비칭인 반파국의 본래 이름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伯海’ 즉 ‘파해’와 ‘雨坪’ 즉 ‘비평’ 모두, ‘반파’는 물론이고, 그 음가인 ‘하해’=‘파해’와도 연결되었다.

6. 맺음말

역사서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수록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조차 없다. 많은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가 추려져 게재된다. 이렇듯 주관성을 지닌 기록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2차·3차 가공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6세기 초기에 돌연히 등장했다가 사라진 반파국은,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의 이해까지 부딪히는 국제 분쟁 때문에 존재가 남겨졌다. 분쟁의 주역이 될 정도로 성장한 반파국의 비중을 알려주었다. 흔히들 대가야와 금관가야 그리고 안라를 ‘가야의 빅(Big)3’로 운위한다. 이제는 반파국을 포함하여 ‘가야의 빅4’ 설정이 가능해졌다. 동쪽의 금관가야, 북쪽의 대가야, 남쪽의 안라, 서쪽의 반파국이다. 반파국은 전라북도 동부 지역연맹체의 맹주였다. 문헌과 물증을 통한 치밀한 분석 끝에 반파국의 위치는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밝혀졌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잃어버린 반파국의 역사는 이제라도 온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후손들에게 부여된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사진 추가

1,500년 전 가야 봉수왕국, 반파국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잘 아시다시피 봉수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도맡은 통신유적의 백미이다. ‘일본서기’에 반파국은 봉후(수)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른 가야왕국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것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파국은 고대국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신라와 적대관계를 자초했다. 그만큼 가야사에서 반파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

중국 및 일본 당대 기록에 반파국이 모두 다 등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20년 경 지은 중국 문헌 ‘양직공도’에 첫 번째 그 이름을 올려 반파국의 위상과 국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반파국이 등장하지 않아 적지 않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렇게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 여섯 가야왕국의 국명은 당시 중국 및 일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1,500년 전 문헌에 의하면 반파국은 강력한 가야왕국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 요구하는 반파국의 정체성(identity)은 일관되게 봉후(수)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야봉수는 반파국의 아이콘(icon)이다. 1990년대 한 개소의 가야봉수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고령에 도읍을 둔 대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한 견해가 정설로써 줄곧 큰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야봉수가 발견되지 않아 학계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봉수는 110여 개소에 달한다. 지금도 봉수를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여 년 동안 1,000m 내외의 산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가야봉수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고고학자의 독심에 큰 감사를 드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야봉수에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걸어진 길보다 더 먼 길을 또 가야할 것 같다.

2017년 11월 25일 백두대간 치재에서 ‘봉수 왕국 전북 가야’ 선포식을 거행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 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이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가야봉수가 발견되어, 전북 가야 앞에 봉수 왕국이라는 수식어가 초대를 받았다.

전북 가야의 영역 설정은 가야 봉수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이제까지 여덟 갈래의 반파국 봉수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수로의 출발지를 연결하면 반파국의 국경선이 완성된다. 반파국 영역은 백두대간이 동쪽과 섬진강이 서쪽 경계를 이루고 충남 금산군이 북쪽 국경을 이룬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한다. 그리하여 가야봉수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반파국이 섬진강과 만경강 유역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 봉수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반파국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 봉화산 봉수 등 8개소의 가야봉수가 장계분지를 병풍처럼 감싼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 내 봉수시설이 모든 봉수로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 다섯 갈래 봉수로의 정



전북 동부지역 여덟 갈래 봉수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와 장수 침령산성 항공사진

보를 하나로 모아서 합하는 서울 목멱산과 같은 곳으로 그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터가 자리하고 있다.

장수군 장계분지는 반파국 도읍지였다. 장계분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성주산(聖主山)으로 반파국 도읍지 주산으로 추정된다. 성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태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고 전한다.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최고의 혈처를 이뤘는데, 그곳이 바로 반파국 왕궁 터로 추정되고 있다. 후백제 때 사찰을 지어 반파국의 왕궁 터와 후백제 개안사지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 왕궁리 유적과 그 역사성이 똑같은 곳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반파국 왕과 왕비, 왕족이 잠든 지하궁전이다. 현재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는데, 본래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제강점기 도꾸라세이지가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굴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과 추정 왕궁 터가 장계분지에 공존함으로써 반파국 도읍지였음을 확증해 주었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이다. 현재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가장 많이 학계에 보고된 곳도 장수군이다. 현재까지 반파국 영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00여 개소에 달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다져 전국에 봉수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반파국의 가야봉수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어떻게 보면 반파국의 가야봉수와 제철유적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일관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장수군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장수군의 관심과 지원에 큰 박수를 보낸다. 반파국이 봉수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제철유적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올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가야를 정중히 초대해 준 장수군과 장수군민들의 반파국 사랑에 큰 경의를 표한다.

반파국 지배자의 무덤

전 상 학 전주문화유산 연구원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장수군은 장수천과 장계천이 각각 북쪽으로 흘러가며 그 주변 지역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에 위치한 월성치·육십령·깃재 등의 고개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상의 요충지를 이룬다.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장수군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고총은 신라 및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수장층이 축조하였던 무덤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분의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무덤을 의미한다. 고총은 성곽과 함께 국가단계의 정치체의 출현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근거와 신라 및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배자가 만들었던 무덤이다. 고총의 존재는 그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고총의 규모와 기수는 조영집단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가야고분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이는 금강 수계권의 장수 삼봉리·동촌리, 남강 수계권의 남원 월산리·두락리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은 규모와 출토유물 면에서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중 장수군 일원에는 삼국시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반파국]의 지배자 무덤 240여기가 장수군 일원에 자리한다.

발굴조사된 주요 가야 고분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고리고분군은 장수군 일원에서 1995년 처음으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



장수 삼고리 가야고분군 출토유물

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던 세력집단이 6세기 전반까지 백제가 아닌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3기의 고분에서 수혈식 석곽묘 12기, 토광묘 13기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세력의 토기들과 여러 가지 철제무기와 말장신구 등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2호분에는 2기의 석곽묘가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1호 석곽묘에서는 금제이식과 옥 등의 장신구와 방추차가, 2호 석곽묘에서는 환두도, 철촉, 철검 등의 무기류와 재갈 등이 출토되었다. 2호분에서 출토된 원형의 장식이 달린 금제이식과 채색옥, 오각형의 장식을 이루는 환두도는 백두대간 서쪽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사례이다. 3호분은 주매장시설[무덤의 지배자가 묻힌 공간]에 대가야, 백제, 소가야, 신라의 토기[고배: 굽이 달린 접시]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삼국시대 반파국은 백제, 신라, 마한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여러 가야 등과 역동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하리 가야고분군은 석곽묘 6기가 조사되었는데, 봉토

는 유실되었으며 3호의 석곽묘의 경우 타원형의 주구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개석은 남아있지 않고, 벽석은 3~4단 내외로 남아있다. 3호 석곽묘의 주구[무덤 주위의 도랑]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가 깨뜨려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마한의 무덤[분구묘] 전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여러 가지 토기와 철제무기와 농공구, 금제귀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현지 제작품 외에 백제, 마한, 대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고분의 축조집단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도 주변 세력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삼봉리고분군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에 위치하며, 백화산(白華山; 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문화유적총람』에는 “토만두형고분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발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40여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릉의 정상(선)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내외의 대형분 2기와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직경 10~15m의 중형분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이 배치되었고, 주변에 소형분이 자리한다. 무덤의 봉분은 타원형이고,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은 시설하지 않았다. 봉분의 중앙부에 자리한 지배자가 묻힌 석곽(주석곽)¹을 중심으로 여러 기의 순장²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옹관묘 또는 토광묘가 배치된 다장식³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2호분의 주석곽에서는 양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대가야 지역이나 운봉고원 가야 지배자의 무덤보다 폭이 넓은 형태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토기와 말장신구, 다양한 철제무기가 출토되었다. 삼봉리 고분군은 동촌리 고분군과 함께 백두대간 서쪽에서 최대 규모의 고총 고분군으로 이 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반파국 지배자의 무덤군으로 삼국시대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동촌리고분군은 금강의 상류지역인 장수분지 동남쪽에 자리하며,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뺏어내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8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자리한다. 200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1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봉토 내에 두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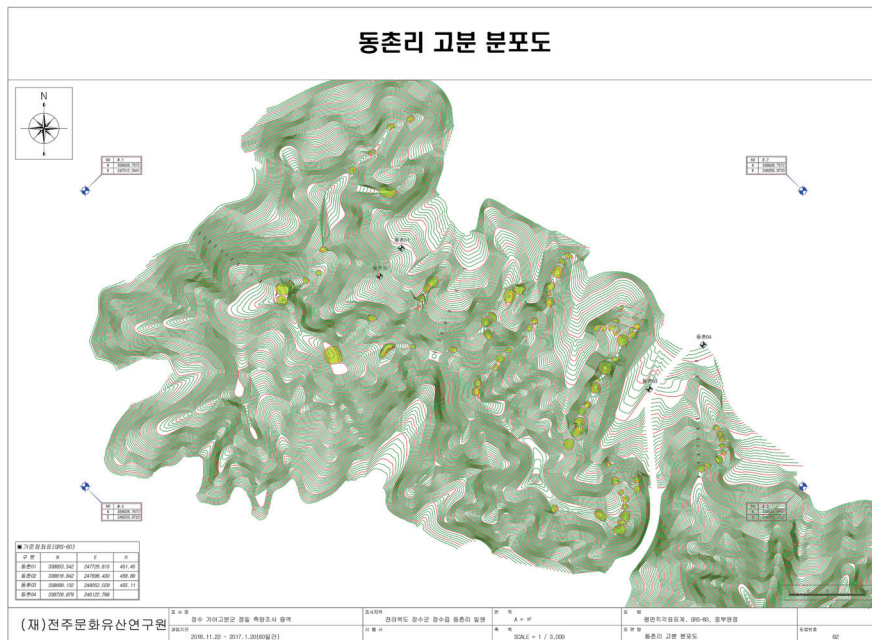
상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분이 확인되었으며,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이후 조사된 1호분은 봉토의 규모가 중형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유물은 여러 가지 토기가 부장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말굽[편자]이 장이 박힌 상태로 말뼉과 함께 출토되었다. 동촌리 30호분은 봉토와 주매장시설의 규모가 대형이다. 출토된 유물은 현지 제작품, 백제, 소가야, 대가야 등 여러 세력의 토기가 있으며, 말장신구와 철제 무기가 있다. 이중 말재갈은 특이한 형태로 주로 삼국시대 지배자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28호분은 봉분이 남북 20m, 동서 15m, 잔존 높이 4m 내외의 규모로 대형 무덤이다. 주매장시설과 순장곽이 확인되었으며, 목긴항아리와 말장신구, 장식대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수군 일원은 백제, 신라, 가야라는 커다란 세력이 부딪히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형성한 문화가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 지역 가야고분의 입지는 주변에 하천과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이면서,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다. 고총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수계권의 장수(동촌리)·장계(삼봉리)분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입

1 돌로 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

2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들을 함께 매장하던 고대 장례 풍속

3 여러 기의 무덤이 하나의 봉분 안에 만들어진 무덤형식



지적인 특성은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이며, 봉분의 평면형태·축조기법·주구 등 마한과 가야 묘제가 어우러져 발전된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봉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가야계 고총 중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는데,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중촌리·생초,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봉분의 축조양상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릉의 정상부를 깎아내어 기저부가 주위보다 높게 묘역을 조성하였다. 묘역 조성 시 기저부는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여 평탄하게 만든 후 2~4개의 층을 1차로 쌓았다. 봉분 조성 시 경사면에 따라 다른 축조방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장 유물들은 가야 권역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위신재의 부장이 확인되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동일 고분 내에서 확인된다. 토기류는 현지, 대가야, 소가야, 백제, 신라, 마한, 왜 제작품 등이 있다.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고분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이는
금강 수계권의 장수 삼봉리·동촌리, 남강 수계권의 남

원 월산리·두락리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은 규모와 출토유물 면에서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간 학계에서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 장수군 일원의 가야,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세력, 진안고원의 가야, 장수가야 등으로 불렸던 반파국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가야 세력 중 유일하게 한반도 남부의 패자인 백제와 국경을 맞대고 대규모 산성과 봉수를 축조였으며, 지배자 집단의 무덤인 고총 240여기를 조영했던 강대한 정치체였다.

현재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지역 가야에 대한 연구는 꾸준한 지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분묘, 관방, 생산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장수가야 방어의 핵심, 삼봉리 산성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지난 2017년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북지역 가야세력의 중심권으로 알려져 있는 장수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장수 동촌리·삼봉리·삼고리·노하리 등의 가야계 고층은 물론, 삼국시대 봉수, 산성, 제철유적 등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침곡리 봉수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그간 추정에 머물렀던 가야 봉수의 구조와 운영주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고,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삼국시대 장수군에는 철 생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가야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인 ‘반파국(伴波國)’이 장수군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고학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정치체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국방 등 3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치를 대변하는 왕릉급 고층, 경제를 상징하는 생산유적의 존재, 국방유적인 산성 등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수군에는 240여기의 고층과 120여개소의 제철유적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장수군에 위치한 침령·합미·삼봉리 산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가야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2018년~2019년 이루어진 삼봉리 산성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과 함께, 가야 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정상부에서는 가야 봉수의 흔적인 발견됨에 따라, 장수 가야의 방어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봉리 산성(봉수)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와 계남면 화음리의 경계를 이루는 백화산(해발 849.5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정상부(해발 555m)에 위치한다. 이곳은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백두대간 육십령의 서쪽 초입에 해당된다. 산성에 오르면, 장계분지는 물론, 전북지역 최대의 가야 고층군이자, 장수가야(伴波國)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장수 삼봉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은 서쪽의 산 정상부와 동쪽의 평탄지를 감싼 테뫼



장수 삼봉리 산성 및 장수 삼봉리 가야 고분군 원경(동쪽에서)



장수 삼봉리 산성 성벽 근경



산성 내 정상부(봉수 추정지)



삼봉리 산성 출토 가야 토기

식 석성이며, 둘레는 300m 내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나, 동북쪽이 돌출된 특이한 형태이다.

성벽은 산 경사면을 'L'자형으로 깎아내고 외벽만 쌓은 형태인데, 자연암반 위에 다듬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쌓아 올리면서, 성돌과 기저부, 성돌과 성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성벽의 축조기법은 백제 또는 신라계 산성의 성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특징적인 것으로, 장수 명덕리 봉수, 진안 운장산 산성, 완주 불명산 봉수 등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야계 봉수의 봉대(烽臺, 봉수의 거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부) 및 소규모 산성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산성의 내부에 명확한 지상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부의 경우, 자연암반을 인위적으로 다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석재를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쌓았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상부 중앙에 산화된 석재들이 확인 다듬은 흔적과 산화된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의 봉수를 확인된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의 조성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부장경호(굽달린목긴항아리), 유개장경호(뚜껑 있는 목긴항아리), 시루 등 가야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산성과 인접된 장수 삼봉리 고충군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그 속성이 일치한다. 이는 삼봉리 산성이 장수군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밖에도 삼봉리 산성에서는 8세기 전후한 시기에 조성

된 것으로 보이는 화장묘(시신을 불에 태워 남은 뼈 또는 뼈가루를 그릇에 담아 묻은 무덤)를 비롯하여 후백제 시기의 토기편과 기와편, 철기류 등과 함께 건물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혈(기둥을 박았던 구멍) 등 확인되었다. 특히 출토된 철기 중에 철제 다연(茶碾, 찻잎 또는 약재 등을 가는 도구)이 있는데, 발굴품으로는 매우 희소한 것으로 창녕 화왕산성, 문경 고모산성, 부소산성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처럼 장수 삼봉리 산성은 삼국시대 장수군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에 의해 산성 혹은 봉수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처음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묘역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고, 후백제 때 다시 누정(樓亭)과 같은 시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적으로, 장수군의 고대 역사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산성의 기능 및 성격, 내부 시설의 현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가야세력에 의해 축성된 석성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성곽 연구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수 가야세력의 정체성 및 역사성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 문화의 보고^{寶庫} 장수군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철(鐵)은 가열해 녹이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금속류에 비해 강도가 단단해 생산기술이 등장한 이래, 도구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인식되어 왔다. 철기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어 역사적으로 철을 빼놓고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고대의 우리 조상들은 무기를 제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농기구를 만들어 경제력을 증대하였다. 때문에 철기의 생산력은 국력(國力)과 직결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철제품이 손쉽게 생산되지만 고대에는 재래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가치는 지금보다 컸다. 각 국은 철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였고 이로 인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장수군에는 삼봉리, 동춘리, 삼고리를 중심으로 240여 개의 가야 무덤이 분포한다. 발굴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가야는 5~6세기 동안 굳건하게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도 다른 고대국가처럼 철산지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국력을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수군을 무대로 성장한 가야 사람들 역시 철을 기반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무덤에서는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 말갖춤(馬具), 화살촉(鐵鏃), 화살통 또는 화살통 장식(盛矢具),

마구(馬具), 철창(鐵矛), 낫(鐵鎌), 도끼(鐵斧), 손칼(鐵刀子) 등 다양한 철기가 출토되었다. 매장된 사람의 신분이 높은 대형 무덤일수록 다양한 종류의 철기가 출토되며, 신분이 낮을수록 도끼, 화살촉, 손칼 위주의 소형 철기가 출토된다.

고리자루큰칼은 실전용 병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피장자의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威勢品)의 역할도 하여 대개 중대형 무덤에서 출토된다. 삼고리 2-2호에서 출토된 고리자루큰칼은 고리가 오각형이다. 오각형 고리자루큰칼은 마한·백제지역과 가야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마한·백제지역의 출토 수량이 현저히 많다. 이 유물은 고리의 오각 돌출 정도가 뚜렷한 것과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삼고리 출토품은 돌출 정도가 뚜렷하다. 연기 송원리 KM-96호, 나주 정촌 1호 등 마한 무덤에서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삼고리 2-2호에서는 고리자루큰칼과 함께 마한·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장수지역 가야와 마한·백제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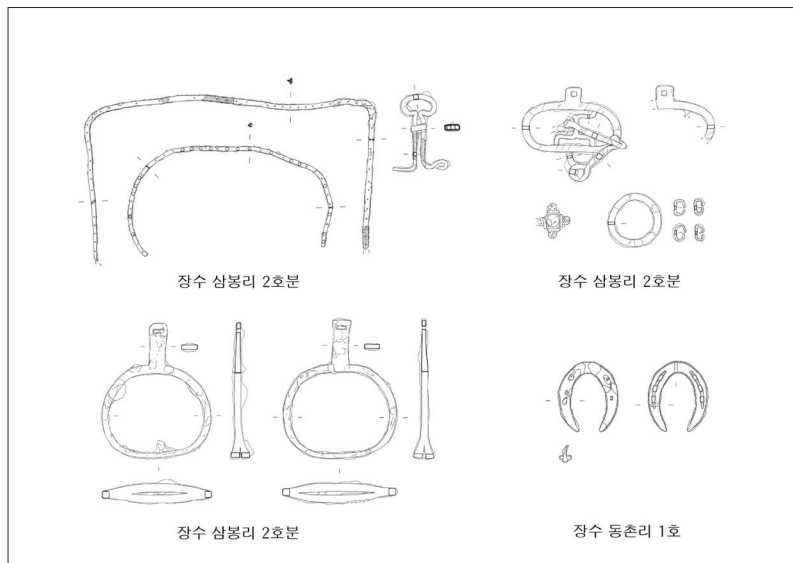
화살촉은 대표적인 원거리 무기로 장수지역 가야 무덤에서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출토되었다. 출토량이 많은 것은 이 지역 가야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했던 무기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지(山地)가 많은 우리나라에



장수 삼고리 2-2호 출토 오각형 고리자루큰칼



장수군 출토 화살촉



장수 가야고분 출토 마구 일괄

서 화살로 게릴라 전술을 펼쳤던 것과 관련이 깊다. 삼국 시대의 화살은 축의 형태가 뱀머리형, 버들잎형, 도형(刀形), 사각형 등 다양하다. 장수지역 가야 사람들의 무덤에서는 뱀머리형, 버들잎형 화살촉이 주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형태의 화살촉이 실전에 적극 사용되었음을 추정된다. 여러 발의 화살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살통이 반드시 필요한데, 삼고리 13호에서는 화살통(盛矢具) 장식이, 동촌리 28호분에서는 화살통이 출토되었다.

말갈춤으로는 재갈(轡), 말걸이(鑑子), 안장, 말발굽(蹄鐵, 편자) 등이 출토되었다. 말갈춤은 말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당시 장수지역 가야 사람들은 말을 전쟁 및 실생활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말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이 중·상류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말갈춤 역시 중대형 무덤 이상에서 출토되어 매장된 사람의 높은 신분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재갈은 말을 제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말갈춤으로 동촌리 28, 30호분, 삼고리 2-2호의 것은 경판(項板)의 형태가 강낭콩 또는 'f'자형으로 장식성이 가미되었으며, 재질은 철이다. 이러한 재갈은 가야와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당시의 최신의 말갈춤 중 하나이다. 삼봉리 2호분 출토품은 경판에 'X'자형의 장식인 가미된 타원형의 재갈로

국내에서 이 유물과 고령 지산동 45호분 출토품 단 2점만 출토되었다. 고령 지산동 45호분은 무덤의 규모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대가야 최전성기의 고분으로 평가되는데, 장수 삼봉리 2호분에서 유사한 형태의 재갈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장수 가야 사람들도 고령 대가야 사람들처럼 고도화된 기마문화를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말발굽은 말이 미끄러지는 것과 말굽이 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말갈춤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수 동촌리 1호분에서 출토된 말발굽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6개의 장방형 구멍이 뚫려있다. 4개의 구멍에 못이 박혀 있고 말의 갈비뼈, 목뼈, 발가락뼈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말에 실제 착용된 상태로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말발굽이 출토된 예로는 광개토태왕릉, 장수왕릉, 석촌동 백제 적석총 1호분, 상주 성동리 92호, 산청 평촌리 226호에서 출토되어 삼국, 가야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출토 사례는 극히 드물다. 말발굽은 달리는 것과 직결되어 다른 말갈춤보다 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이 이루어져야하며, 머지않아 충격으로 인해 변형되면 즉시 수리가 이루어져야했을 것이다. 수리를 위해서는 숙련된 단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이 지



장수 노하리 1호 주곽 살포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분포도

역은 철을 가공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지역 가야 사람들은 철로 낫, 도끼, 살포 등 농기구도 만들었다. 낫은 전체길이가 27cm 미만으로 날 끝이 뾰족하지 않다. 삼국시대의 낫은 날 안쪽에 단이 형성되어 있고 휘어진 것과 단 없이 곧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논농사 또는 풀을 베기 위한 용도이며, 후자는 밭농사 또는 벌채 목적의 낫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에서는 후자 형태의 낫이 주로 출토되어 가야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수전 농업보다 밭농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하리 1호 주곽에서는 살포로 추정되는 유물도 출토되었다. 살포는 물고를 막거나 틀 때 사용하는 농기구로 소유한자는 농업을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장수지역 가야 사람들은 무기, 농기구 등 다양한 철기를 제작하였다. 철기는 당시 장수와 주변지역과의 교류, 매장된 자의 신분, 자연환경 등을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무덤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이 지역에는 고도화된 철 생산기술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지표조사에 따르면, 장수군을 비롯한 전

북 동부지역에는 약 220여 개소의 철 생산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유적은 원료 산지와 가까운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제철유적 중 단일지역 내 최대의 밀집도를 보인다. 장수군 철 생산유적은 철광석에서 철을 1차적으로 뽑아내는 제련(製鍊)에서부터 철을 두들겨 완제품을 제작하는 단야(鍛冶)까지 종합적인 공정을 담당했다. 비록 삼국시대 철 생산유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유적은 원료 산지 주변으로 누대(累代)로 조성되는 특징이 있어 향후 장수군 가야무덤 출토 철기 유물과 철 생산유적과의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장수군은 철기문화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철기 및 철 생산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파국으로 빛나는 빨간 장수

최재원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그 동네를 자랑하는 짙막한 안내 문구가 흘러 나온다. 우리 장수군의 안내 문구는 “세계 제일 사과와 고장, 장수군”이다. 안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장수군의 사과는 맛있고 특별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사과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다.

반파국을 주제로 하면서 상관없는 사과 이야기를 하나 하였지만 그동안 장수군 발전에 있어 사과와 한우는 뺄 수 없는 존재이다. 장수군민의 삶에 있어 여유를 준 것도 이 두 가지 농축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삶에 여유가 생기면 돌아볼 줄 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장수군은 한우와 사과로부터 삶의 여유가 생겼으며 이때부터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고대사회의 한 축이 된 가야 즉 반파국은 이러한 결과를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1991년 장수군청에 입사하고 30년의 세월 동안 많은 행정업무를 통해 사과와 한우 육성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으로 앞으로 장수의 먹거리는 장수의 역사문화 특히 고대의 중심이었던 가야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장수의 고대 문화는 생각보다 훌륭하고 장수지역에 터를 잡은 우리의 선조 가야인들은 열정 DNA를 타고난 듯하다.

당시 한반도의 척추인 백두대간을 넘어 새롭게 뿌리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학자에게서 전라북도 고대사를 동철서염(東鐵西鹽)이라 들은적 있다. 전라북도를 서쪽 해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동쪽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철로 전라북도 고대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필자는 절대 공감한다.

최근 장수군을 비롯한 무주군·남원시·진안군에서 철과 구리의 생산과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고대사회에 있어 철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견줄 만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야의 철기 제작기술은 정평이 나있어 멀리 일본까지 수출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철의 제작기술로 인한 철기유물들의 전파과정이 확인되었을 뿐 이 철들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는 확인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이웃인 백제의 철 생산지가 충청도 충주 일원에서 확인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건립되어 많은 학술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 장수지역 일원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유적도 이에 버금가는 것으로 향후 철생산 유적지 연구결과에 따라 고대 철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회가 새롭다. 철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꾼 중요한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을 생산하던 곳 그곳이 바로 장수군이다.

단편적 예로 육십령고개는 “도적떼가 많아 60명 이상이 모여야 지나갈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육십령고개는 지금의 고속도로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주요 교통길이다.

이곳에 도적떼는 아마도 철을 빼앗아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여지며 철의 무게감으로 60명 정도가 운반 할 정도의 철을 가져가야만 무역이 성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반파국(장수가야의 옛이름)의 성립의 물적증거인 봉수유적은 이러한 철 생산유적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110개소 정도의 봉수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식



기록(고려말)보다 500년이나 앞서 세워진 고대 봉수유적으로 철 생산지를 차지하기 위한 주변국 등 위협 요소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해 건립된 당시 최첨단 통신체계였을 것이다.

유적지와 유물은 천 오백년 전 당시 장수지역에 자리 잡은 반파국(장수가야의 옛이름)은 최고의 산업인 철 생산시설과 최첨단 통신망을 구축한 국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당시 한강 이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것으로 토기 종합백화점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당시 교류사를 이해하는데 값진 자료로 당시 무역을 대표하는 물물교환을 잘 보여준 것이다.

한강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장수로 찾아와 자기 지역의 특산물(토기 등)을 장수의 철과 교환해 갔을 것이다. 이들 유적지에서 확인되는 역사성과 진정성은 당시 장수군의 격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이다.

반파국의 매력은 후백제를 건립한 경상도 출신 견훤까지 흠모했을 정도이다. 후백제는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장수를 최전방 국경으로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근 진안의 청자가마와 장수의 철 생산유적지들을 보호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까지 많은 번영을 이뤘던 장수지역은 왕건의 삼국통일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서 소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이후 장수는 행정구역을 장수와 장계로 나누고 (이

때부터 장수와 장계의 지역감정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중원지방 (충청도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을 육성하고 장수지역의 철 생산유적을 폐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일부 유적지에서 확인되는 고의적 폐쇄 흔적과 고려 이후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몇몇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수군은 철과 봉수유적, 이에 보태어 열정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에 장수 농·축 특산물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이 모두 빨강다. 장수를 대표하는 역사

적 인물인 논개 역시 성이 “주(朱)”씨다.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장수군에 있어 반파국은 장수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를 통해 역사 속 장수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책무이며 널리 알려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장수군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고대사회에서 화려함을 수놓은 찬란한 반파국의 역사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느낌을 좁게는 우리 군민 넓게는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급하면 체하는 법이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일에 있어 열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천오백년이란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반파국의 역사문화, 분명 화려함을 수놓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군의 가야 사랑이 영남지방에 비해 시작은 느렸지만 그들의 실패 요소·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그 격을 높이는데까지의 시간과 예산을 줄여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반파국의 역사가 세계인들이 모두 알아야 할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역사문화로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어야 하며 이는 전북이 함께해야 할 몫이다. 앞으로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된다는 설렘을 간직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천오백 년을 넘어온 파란의 시그널

박진희 장수가야지킴이, 초록누리협동조합 이사장

저는 장수 계남면 호덕리 백화산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십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가야시대 고분인 삼봉리 고분이 있지요.

아이 넷을 키우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더라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람 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언제부터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생각만 있다가 2012년부터 마음이 맞는 분들과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소소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역사회 교육을 함께 고민하던 윗집 언니 황명혜님이 “장수에 가야시대 유적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아래 삼봉리 고분이라요. 이것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라고 이야기해주시며 연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만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장수가 좋아서 장수에 살면서도, 삼봉리 고분 근처 밭을 빌려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밭을 갈 때마다 토기편이 나와 마냥 신기해 했으면서도 장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장수가 가야시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은 그 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십대에 답사소모

임을 하며 지역의 유물 유적을 찾아 다녔었고, 아이들과 역사 유적지로 나들이를 다녔고, 박물관 다니기를 좋아하면서 늦깎이로 시작한 서툰 농사일을 익히고,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내가 사는 마을 바로 아래에 가야시대 유적지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했고,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이 살다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봐야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장수가야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2013년 2월, 장수군 최초의 협동조합인 교육문화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방과 후 마을학교도 하게 되었고, 지역 초중고와 함께 교육공동체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장수가야탐방 수업을 반드시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장수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가야 수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촌리고분군 발굴 현장도 가고, 삼봉리고분군, 대적골 제철 유적지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동촌리고분, 삼봉리고분이 정비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고분처럼 잔디옷을 입고 있지 않은 정비되지 않은 고분, 고분만 정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워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방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한여름이라도 반드시 긴팔 옷, 긴바지, 운동화를 신어줄 것을 당부해야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야시대 탐방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TV나 교과서처럼 잘 정비된 곳을 떠올렸는데 혹시 가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실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다. 걱정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는 가야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을 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설레임, 장수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 역시 장수가 가야시대의 보고가 되어가고 있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발굴 현장이나 고분군, 발명에 채일 정도로 많은 제철 슬래그를 보는 것 역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수업은 군산대 곽장근 교수님께 요청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북지역 가야 연구의 중심에 있는 연구자이심에도 곽장근 교수님은 십여명의 초등학생들과 하는 수업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장수가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밥을 드시자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계공고(지금의 유니텍고등학교) 양정양 (전)교장선생님도 계셨는데 양정양 교장선생님은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일은 학생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며 학교에서 장수가야 탐방 수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보다 장수가야를 알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 조합원들은 장수가야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장수가야 지킴이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장수인구가 24,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장수가야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장수가야를 만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를 만들고, 유적지 탐방, 박물관 견학, 장수가야를 통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월 어린이날, 11월 학생의

날 행사 때마다 장수가야를 알리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수가야 유물 모양 쿠키 만들기, 장수가야 에코백 만들기, 장수가야 유물 팔찌 만들기, 장수가야 토기 빚기, 가야시대처럼 차 마시기, 장수가야 보드게임, 봉수 만들기, 장수가야유물 퍼즐 맞추기, 장수 대장간 체험을 개발해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도 진행했고, 장수가야 역사 캠프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모임(아이유)도 만들어졌습니다.

천오백 년 전 장수가야가 청소년들과 조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청소년 장수가야 상품공작소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직접 장수가야 유물 유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지금 장수가야 홍보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수가야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장수가야 유물 펜그림학교를 열어 그림을 배우고 장수가야를 작품으로 만들어 한달 동안 군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수가야가 노래로, 음악으로, 무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장수가야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벌써 올해 3회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다양하게 장수가야를 연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모전을 진행해 장수가야 유적지와 관련된 구술보고서, 장수가야 시나리오 창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장수가야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교육과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어른들이 장수가야를 홍보하는 물품을 제작해보는 교육, 동촌리고분군, 삼봉리고분군, 침령산성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하는 힘, 그 힘은 장수가야에 있었습니다. 장수가야가 보내는 시그널을 따라가다보니 사람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장수가야의 제철 유적들이 장수시장 박석진 대장장이 어르신을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노신환 도예가를 보면서 장수가야 토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서하 작가를

보면서 장수가야 유물팔찌가 생각났습니다. 박송자 자연해설사를 보면서 가야시대 차마심을 생각했습니다. 김두황 리조이스카이어 합창단 단장을 보면서 문화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츠레드푸드체험관 이진영 지도사를 보면서 장수가야유물쿠키 만들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성님을 보면서 장수가야 문화제 무대가 예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휘승님과 이진희님을 보면서 장수가야가 멋진 사진과 영상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길내님, 남우정님, 권인숙님, 박향희님, 김두정님, 박규희님, 박경선님, 한은미님, 이선림님, 이선숙님, 하해숙님이 장수 역사 교육의 주체가 되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묵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민간의 장수가야 활동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장수군청의 이현석, 채석진 두분의 학예사님이 보내시는 응원과 격려도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니 여러 가지 기획도 실행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장수에서 장수가야 프로그램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수천 명입니다. 군청 로비에 군민이 만든 장수가야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수가야 시그널을 여러 분야, 여러 곳으로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당장의 화려한 유적, 유물,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이 존재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느 땅, 어느 곳 역사를 품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나라 곳곳이 문화재 수탈과 도굴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장수가야 역시 도굴의 흔적이 많고, 일제강점기 때 도굴하는 것을 보았다는 어르신들의 증언도 많습니다. 가끔씩 어쩌면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려함에 기댄 역사의식이 가야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왕조 500년보다 긴 600여 년 세월을 이어왔음에도 중앙집권 왕국이 아니라 연맹국이라는 이유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사국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가 늦게 시

작되고, 더 화려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남의 가야는 가야가 맞아 하는 의심어린 시선을 여전히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금장식 번쩍이는 왕관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핵심, 봉수는 장수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반파국이라는 천오백 년 전 역사의 시그널이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의 신호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곳이 반파국이었다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아. 어쩌면 40년 가까운 도시 생활을 접고 백화산 자락에 저를 살게 한 그 힘도 장수가야가 보낸 시그널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파란의 그 신호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진 추가

전북 가야문화유산 학술연구의 새로운 전환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역할

소재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7월 행안부의 조직 신설 확정을 통해 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 거점 국립기관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10월 4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이 열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으로서 7번째 지방소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현재 건물은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안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고분, 산성, 봉수, 생산유적 등 수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 가야문화와 관련한 조사연구는 그간 간헐적인 조사에 치우쳐 있던 관계로 사람들의 이목을 그다지 끌지 못했었다. 영남권처럼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도 뒤따라야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또한 가야문화가 전북 서부지역의 마한과 백제에 가려져 있었던 것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쳐진 것이 오히려 매장문화재 보존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개발로 인하여 많은 유적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개발로 인한 유적의 소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 가야사 연구가 동서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학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사업에서 탄력을 받게 된 점도 전북지역 가야사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고 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진안 도토리 청자요지와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지역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분포유적수 대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토리 청자요지와 동촌리 고분군 등이 학술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로 인식하고 분류되고 있는 점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진안 도토리 청자요지(사적 제551호)는 10~11세기 전북지역의 초기 청자의 시작을 알 수 있는 대규모 가마터로 후백제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중요 유적이다. 또 장수 동촌리 고분군(사적 제552호)은 학계에서 최근 제시하고 있는 반파국 혹은 장수가야와 관련된 지역 수장층의 묘제로 장수 일원의 고대 매장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술조사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지역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 그 성과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조직 신설 이후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임시청사

반으로 올해부터는 ‘초기철기 및 가야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문화유적 조사연구’와 ‘근현대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등 중장기 연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연구 뿐만 아니라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가야 관련 연구과제로 설계한 ‘남원 운봉고원 가야정치체 실체 규명 학술연구’이다. 남원 운봉고원 일대는 장수지역과 더불어 전북 가야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역이다. 또한 근래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학술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가야 관련 매장문화재 보호와 현황파악을 위해 올해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관련 유적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조사된 지표조사와 유적 분포조사를 아우르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PS와 드론을 활용하여 유적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유적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유적의 훼손 여부 등에 관한 모니터링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말에 분포현황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가야 관련 유적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에는 분포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와 학술성고를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작년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협업으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을 발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을 오는 9월 초경에 계획하고 있다. 작년 청계리 청계고분군을 발굴조사한 결과,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전형적인 가야 수혈식 석곽묘와 능선상의 군집배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와 함께 아라가야와 관련된 수레바퀴 장식 토기, 대가야계 발형 기대와 고배, 왜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나무 빗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어 이 일대의 가야 고분 문화와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문물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나 남원 운봉고원 일대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가야 고분군이 확인됨에 따라 이 일대 가야정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조사 전경

치체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연구가 차후에 더 진행된다고 하면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세력 성립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은 1989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유적 정비 및 학술성과의 보안을 위한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적은 5~6세기경 가야정치체 발전과 관련된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 이 유적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명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정비가 필요한 무덤에 한해 조사대상을 국한하여 올 하반기에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 내외에 현재 경작 등으로 파괴된 지점에 대한 지하물리탐사를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탐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잔존여부와 고분군 추가 분포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발굴성과와 이에 따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 지정관리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

문후백제 왕도 유적의 위기와 기회

이 춘 구 역사문화운동가

호남제일성, 전라도 수부인 전주는 천년 고도로 불리고 있다. 전주가 천년 고도인 것은 견훤왕이 892년 무진주(光州)에 세운 후백제 도읍을 900년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017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 반월형의 전주도성이 복원됐다고 한다. 도성은 전주 주산인 기린봉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그대로 이용했다. 전주시 노송동 일대가 풍수지리로 후백제 도성이 들어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광장근 교수님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봉리 궁성 터 북벽에 서면 기린봉 정상이 마주 보이고 혈이 뭉치는 형국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에는 후백제 왕궁 터 추정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표시해 놓고 있다. 아울러 궁성 안쪽과 궁성 북벽 부근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반유구의 존재를 설명하는 안내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후백제 왕궁 터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후백제 왕궁 터로 믿어오는 이 지역을 일거에 없애버리면 37년 간 후백제 왕도로서 찬란한 문화를 일으켜 세운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주 시민과 전라도 도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2018년 7월 쯤 기자촌 북쪽 성벽 부근에서 기와 조각 여러 개를 수습했다. 이를 촬영해서 광장근 교수님께 보여드리니 수지문이 들어간 후백제 기와라고 설명해주셨다. 암키와와 숫키와가 상당히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이다. 일부 겉면이 붉은 색깔을 머금고 있는 데 이는 후백제 왕궁이 불에 타면서 불에 덴 흔적이라고 광장근 교수님은 역

설하셨다. 궁성이 불에 타면서 기와가 산화하고 붉은 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기와들에는 나뭇가지 또는 창문틀의 무늬가 있다. 아무래도 궁성으로서 외관과 미를 뽑내기 위해 만든 무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봉리 일대는 후백제 유물의 보고(寶庫)인 것이 확실해졌다. 성벽 처마를 덮거나 정원의 바닥재로 쓰인 편마암 바위들이 동네 정원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바위 위에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흔적들이 여러 곳 남아 있다. 암석 위에 구멍을 뚫고 화학제를 넣은 뒤 끝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 채석한 흔적들이다. 또한 정원의 경계석으로 파묻거나 석류나무 등을 둘러싼 바위들도 형형색색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붉은 차돌처럼 생긴 바위를 광장근 교수님은 주목하고 정원석으로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 모든 바위들은 기린봉 정상에서 동고산성 사이 능선 계곡에서 채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 등산길에서 채석 흔적들을 살필 수 있었다. 기린봉 정상에서는 편마암을 채취한 구멍들이 여러 개 확인되었다. 또 동고산성 가는 능선에서는 정원석과 같은 재질과 색깔의 바위들이 쉽게 관찰되었다.

또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우물도 4미터 깊이로 보존되고 있다. 정원 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원 급수용 등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우물은 기자촌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물왕말 큰 샘과 비슷한 형태의 우물들이다. 북쪽 성벽 터와 연결되는 곳에는 용화사가 자리 잡고 있다. 용화사에는 무릎 까지 땅에 파묻혔던 흔적이 남아 있는 석불입상이 있다. 광장근 교수님은 미륵사상을 신봉하는 후백제의 왕궁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상도 두

상이 잘려졌는데 두상이 잘려진 후백제 불상은 전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아마도 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힘들게 했던 후백제에 대한 고려의 보복이 아닐까? 지금 진행 중인 서벽 발굴에서 유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해자 흔적도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해자 길을 따라 노송천이 큰 계곡을 이루고 흐른 것으로 보여 이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학계는 후백제 궁성 터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후백제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시급

하다고 주장한다. 후백제촌은 궁성 전각과 성벽, 정원, 우물 등을 복원하고 후백제 문화를 체험하는 형태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일부 빈 땅을 전주시가 사들여 전각 등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정원과 우물 등도 지금 있는 형태대로 잘 살리면 될 것 같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천년 고도 전주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학계의 바람대로 후백제촌이 조성되면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온전하게 역사를 복원하게 될 것이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후백제촌에 머물면서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한옥마을도 둘러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복원과 관광경제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전주는 후백제 왕도로서, 중세시대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다한 만큼 “고도”에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를 추가해야 한다.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전주로 천도하면서 “백제 의자왕의 숙분을 풀겠다!”고 절규했다. 견훤왕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해양문화를 찬란하게 일군 백제정신을 선양하고자 새 나라를 세운 것이다.



후백제 도성(전주성-피난성)

견훤왕의 건국과 혁명정신은 신라 말의 분열과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다. 궁극적으로 삼한을 다시 통일하고, 민족이 화합하며 공정하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천년 고도로서 전주를 찬미하는 데도 불구하고 후백제 궁성 터를 밀어버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는 재개발 사업이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지되지도 않고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역사는 영영 사라질까 우려되는 바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후백제 역사를 잃게 되는 전주 시민은 혼백을 잃은 시민이 될까 두렵다. 전주의 상징인 천년 고도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고, 견훤왕궁로, 견훤로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전라북도 방언의 발음 ‘시체(셋째)’

장승익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인 중 한 사람은 어렸을 적 집안에서 ‘시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평소에 말수도 적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성격인데, 이러한 그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했었다. 아니면 ‘개똥이, 소똥이’처럼 액운을 멀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안의 귀한 자식에게 ‘시체’라니! 짐작했겠지만, ‘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검’의 의미가 아니다. 전북방언에서는 ‘셋째’를 ‘시체’ 또는 ‘시째’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필자가 ‘시체’로 오해한 것이다. 이 지역의 방언 자료를 살펴보니 이러한 오해를 받은 것은 비단 필자의 지인만은 아니었을 듯하다.

- 시체 큰아버지[정읍, 순창] <한국방언자료집>5(전라북도 편)
- 인자 시체 머시매를 낳싸. {인제 셋째 남자 아이를 낳어.} <2005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남원)¹
- 두째 놈이 또 받아갖고 뜯지. 공색허게 뜯은게 시체 놈이 가만히 그 뜯는 것 본게 속으서 열화가 나... <한국구비문학대계5-6>(정읍)

이렇듯 ‘셋째’가 ‘시체’로 된 것은 단어 첫머리의 ‘ㄱ’이 ‘ㅣ’로 바뀐 결과이며, 이는 고모음화(高母音化)의 한 사례이다. ‘고모음화’란 중모음(中母音)이 고모음(高母音)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모음의 고, 중, 저를 결정하는 것은 혀와 입천장 사이의 거리이다. 입을 적게 벌릴수록 혀는 입천장에 가까워지므로 ‘고모음’이 되고, 반대로 입을

많이 벌릴수록 혀가 입천장과 멀어지므로 ‘저모음’이 되는 것이다. 국어에는 ‘ㄱ, ㄴ, ㄷ’이 각각 ‘ㅣ, ㅡ, ㅜ’로 바뀌는 고모음화 현상이 있는데, 이중 전북방언에서는 ‘ㄱ’이 ‘ㅣ’로 바뀌는 고모음화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전북 사람들은 ‘세 개’가 아니라 ‘시 개’라 하고, ‘제사’ 보다는 ‘지사’를 모시며, 방죽에서 ‘메기’는 잡지 못하더라도 ‘미기’는 간혹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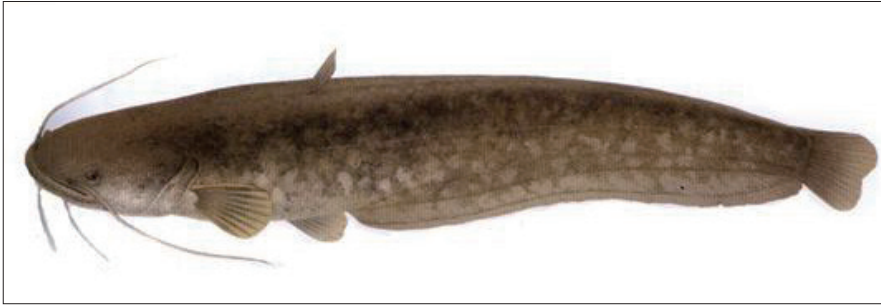
- 세² > 시: 금방석을 시 개씩이나 깔구 앉았다고 합디다. <한국구비문학대계5-2>(완주)
- 제사 > 지사: 우리 아버지 지사 지내야겠다고 시방 이 서로 이 상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5-4>(군산)
- 메기 > 미기: 인자 미기를 인자 낚시질을 가서 <한국구비문학대계5-7>(정읍)

‘ㄱ’이 ‘ㅣ’로 바뀌는 것은 명사뿐 아니라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뱃돈 받고 몰래 ‘시어’ 본 경험, 난로에 손 ‘디어’ 본 경험, 연필 깎다가 칼에 ‘비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북 사람들에게는 ‘세다, 데다, 베다’보다 ‘시다, 디다, 비다’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전북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세다 > 시다: 갯수를 시어 바라, 갯수를 <최명희, 혼불>
- 데다 > 다다: 으편 놈은 얼어죽게 맨들고 으편 놈은 디어 죽게 맨들고 <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 베다 > 바다: 그 깨렷직한 과거는 칼루다가 비어 버리듯이

1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제보자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채록하고 {}안에 표준어 대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예문들과 체제가 다르다.

2 ‘:’는 장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미기(메기): 전북 사람들은 ‘메기’를 ‘미기’라 한다.(사진 출처: 국립국어원) / ‘비개(베개): 전북 사람들은 ‘베개’를 ‘비개’라 한다.(사진 출처: 국립국어원)

잊어야 해요.<채만식, 탁류>

지금까지 살펴본 예는 모두 단어의 첫머리에, 그것도 ‘장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다. 본래 ‘ㄱ’이 ‘ㅣ’로 바뀌는 고모음화는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북방언에서는 이 현상이 매우 강력하여,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 장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모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래 예 중 ‘모리, 언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데도 고모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비개’는 단어 첫머리이기는 하나 장음이 없는 경우인데, 이 때도 고모음화가 일어난 예가 확인된다.

- 모리 > 모리: 내가 내일 아침, 내일 모리 아침까장 돈 천 냇이 필요하니 돈 천 냇을 굶어내라. <한국구비문학대계 5-4>(군산)
- 언제 > 언지: 이 바우는 언지든지 인자, 이, 벼락을 맞는다. <한국구비문학대계5-2>(완주)
- 베개 > 비개: 으르신네덜 비개 가튼 건 안 해써. {으르신네들 베개 같은 건 안했어.} <2007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군산)

이에 더해, 전북방언에서 이 고모음화 강력하다는 것은 다른 예에서도 확인이 된다. 본래 ‘ㄱ’이 아니던 것이 어떤 음운 현상에 의해 ‘ㄱ’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ㅣ’로 고모음화하는 예가 그것이다. 아래의 첫 번째 예를 보면, ‘며칠’의 1음절 모음 ‘ㅣ’가 ‘ㄱ’로 바뀐 후,³ 다시 고모음화가 적

용된 ‘미칠’로 바뀌었다. ‘빋기다’(빋기다)는 본래 ‘ㅣ’였는데 ‘ㄱ’로 바뀌고,⁴ 그 후 다시 고모음화를 입은 예이다.

- 며칠 > 메칠 > 미칠: 나는 인자 미칠 이씨면 고엽부러 간다.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고용하러 간다.} <2009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임실)
- 빋기다 > 벳기다 > 빋기다: “치매도 벗어라 단속곳도 벗어라.” 채곡 채곡 다 그렇게 활썬 빋기 났어. <한국구비문학대계5-7>(정읍)

앞서 언급한 것처럼 ‘ㄱ’이 ‘ㅣ’로 바뀌는 고모음화는 단어 첫머리에서 장음이 있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모음 ‘ㄱ:’는 단모음 ‘ㄱ’에 비해 입을 덜 벌린다. 즉 ‘ㄱ:’가 고모음 ‘ㅣ’에 조금 더 가까운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음을 가진 ‘ㄱ:’가 ‘ㅣ’로 바뀌기 수월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음의 경제성 측면, 다시 말해 입을 적게 벌리고 발음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 사투리라 치부하고 넘어가는 말 하나에도 그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 꽤 흥미롭지 않은가?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전북방언의 발음에 담겨 있는 규칙과 원리를 알아보기로 한다.

찾아볼 수 있는 음운 현상 중 하나이다. 위에 언급한 ‘메칠(며칠)’ 외에도 ‘메느리(며느리), 뻘(뼉), 경운기(경운기)’ 등 다양한 예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4 이러한 현상을 ‘움라우트’, 또는 ‘이-역행동화’라 한다. 이 또한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3 이중모음 ‘ㅣ’가 ‘ㄱ’로 바뀌는 ‘모음 축약’ 현상도 전북방언에서 쉽게

교통의 발달에 따른 20세기 초 서울지역 시집살이 문화의 촉진

김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부갈등의 상징인 ‘시집살이 문화’가 조선사회가 아닌, 20세기에 정착된 비교적 최근 문화라는 점은 이전에 밝힌바 있다.¹ 그중에서도 18세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길었던 우귀²의 기간이, 이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학자 정약용의 문집인 「가례작의(嘉禮酌儀, 1810c)」에서, 그 서문에 “현재 경성(京城)의 귀가(貴家)에서는 하루 사이에 신랑은 전안을 하고, 색시도 시부모를 뵈고 예물을 드려 이를 ”당일신부“라 하니 이 어찌 친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19세기 당시 서울의 부잣집에서는 당일에 신부가 시댁에 인사드리는 친영의 형태가 나뉘었음이 확인된다.

또 다른 사례로 19세기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인(貢人) 지규식의 『하재일기』에서는 아들(1894년), 딸(1901년)의 혼사에서 예식 후 각각 6일, 1일 만에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갔다. 이후 20세기 초 간행된 『현토주해 사례편람(1924)』에서도 당시 서울에서 〈3일우귀〉, 〈당일우귀〉의 형태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위의 세 사례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며느리가 시댁으로 살림을 사는 시집살이 구조가 본격화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19세기부터 서울지역에 급격하게 우귀의 기간이 3일 또는 당일로 짧아진 시가살이 현상의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교통의 발달과 20세기 초 서울의 혼속사례검토

이러한 조선후기의 상황과 연결하여 『서울민속대관(1993)』의 20세기 초반 현지조사 사례를 검토하였다. 혼례 인식과 절차, 개별적인 사례를 수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서울민속대관(1993)』은 20세기의 혼례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에 따르면, 1920년부터 1959년 사이에 혼인한 제보자 22명 중, 신랑 집에서 혼례를 올린 조형산(1934년 결혼)씨와 신식 결혼식장인 YMCA회관과 부민관³에서 혼인한 세 사례를 제외하고는 19명 모두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때,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례 모두 신부가 신랑집으로 우귀하는 기간이 3일 이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계속해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19개의 사례를 혼 후 거주지 형태와 신방장소에 입각하여 분류하면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⁴

첫째,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집에서 신방을 차려, 며칠

1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북문화살롱』 2019년 4월호 「조선시대 혼례의 친영정착 노력과 근대 시집살이 문화의 탄생」 또는 김연수, 『전통 혼례 제도사와 시집살이 문화의 탄생(민속원, 2018)』에 담겨 있다.

2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신방을 치른 뒤 신랑집으로 가는 의식으로, 우귀 이후에는 신부가 시가에서 생활하는 구조이다. 신행(新行)이라고도 한다.

3 부민관(府民館)은 1935년 12월 10일, 경성부(京城府)가 경성에서 강연회라든가 연극·영화·음악·무용 등을 공연할 만한 공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기부금으로 태평로 1가에 세운 극장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참조하였다.

4 『서울민속대관(1993)』의 현지조사 사례 연구는 필자의 「근대시기 혼례문화 변동연구」, 125~13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후에 시댁으로 들어가는 경우(6사례), 둘째, 혼례식 후 신부집에서 신방을 차려 며칠 뒤에 우귀하되, 당일로 시부모를 보고 오는 경우(4사례), 셋째, 혼례식 후 당일로 바로 우귀하여 신랑집에서 신방을 차리는 경우(9사례)가 바로 그것이며, 세 유형 모두 3일 안으로 시가살이하는 특징을 보인다.

① 첫째 유형의 경우는 필자가 참고하였던 조선시대의 문집류에서 실행례로 행하던 우귀의 형태와 유사하며, 다만 그 기간이 3일과 1일로 줄었다는 차이가 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당일이 아닌, 하룻밤을 머물거나 3일 만에 우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는데, 양가(兩家)의 거리가 멀거나 부유한 집안일 때가 그러하다.

먼저 양가의 거리가 먼 경우(3사례), 신랑 일행은 각각 용산에서 과천(약16km), 마포에서 평택(약78km), 마포에서 안산(약36km)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왕복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례식을 올리러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간 신랑 김용화(1938년 결혼)씨는 예식 전날 출발하여, 신부집에서 마련해준 별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식을 올렸다. 함께 3일을 머문 후 우귀할 때는 평택역까지 신부는 가마, 신랑은 말을 타고, 서울역까지는 기차를 탔으며, 신랑집까지는 택시로 이동하였음을 구술하였다.⁵ 이는 비록 양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당일우귀가 아닌 3일우귀를 택한 것으로 보이나, 철도와 자동차 등 운송수단 및 교통의 발달이 없었다면, 약 80km가 되는 거리를 3~4일 동안 왕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근대시기 우리나라에는 1899년 9월, 제물포와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33.2km)이 최초로 개통된 이래, 활발한 철도



마님 나들이(1907)



독일 지질학자(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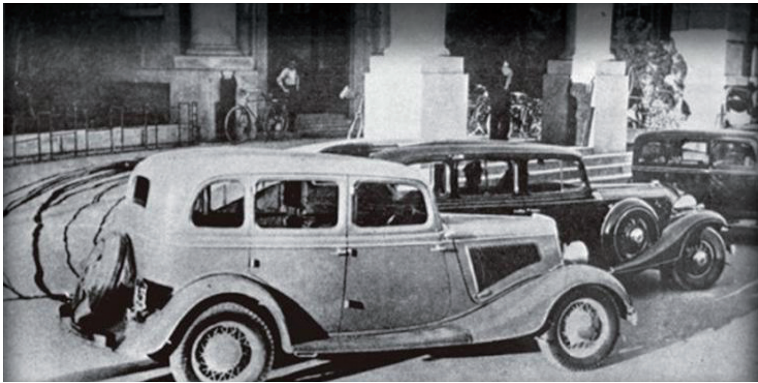
건설 사업이 진행되어 1908년 4월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선 전구간이 개통되었다.⁶ 마포구에 살았던 김용화씨가 평택에서 서울로 신부를 맞아오는 길에 탔던 기차가 바로 이 경부선 철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둘째 유형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여자가 시댁으로 넘어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見舅姑禮),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신랑과 함께 첫날밤을 맞이한 후, 며칠 후에 완전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본 사례들이 대부분 근교에 거주하는 상대와 배필

5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 4. 통과의례편, 1993, 528~529쪽 참조.

6 『한국사 44: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13, 참조



서울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앞 택시(1930년대)



목탄 자동차(1939)

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근거리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그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안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께 인사드린 후,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첫날밤을 보내는 구조는 도보(徒步) 이상의 교통수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민속대관』의 여러 사례들에 따르면, 양가(兩家)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언급된 20사례 중에서, 1920년대에 결혼식을 올린 9사례 모두는 말과 가마를 타고 이동하지만, 193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차와 택시를 이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10년 사이, 말과 가마에서 자동차로 변화한 서울거리의 풍경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기존연구에 의하면, 자동차는

1903년 고종황제에 의하여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래 소수 고위층 관료들의 오락·여흥용으로 사용되다가, 1912년에는 자동차 사업자가 생겨 임대자동차가 도입되었으며, 1928년부터는 경성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었다.⁷ 이처럼 일반 대중이 탈 수 있는 자동차는 1930년대부터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댁과 친정을 좀 더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③ 셋째 유형은 혼례식만 신부집에서 올리고 바로 시댁으로 우귀하는 형태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9사례로 19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시 서울지역의 보편적인 혼례형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결혼식만 신부집에서 올리고 당일로 시댁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반친영(半親迎)과 그 혼례형태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로써, 20세기 초반에 시가살이의 구조를 가지는 혼례문화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서울에서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양가의 왕래를 도보가 아닌, 말(馬)이나 가마, 더 나아가서는 근대시기 운송수단의 발달에 의한 자동차와 기차, 배의 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에서 시가살이 형태의 혼속이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은 조선시대 친영을 일상화하기 위한 이념적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현실적인 반영에 의한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옥분, 「근대기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디자인학연구』 27, 한국디자인학회, 2014, 2~4쪽 참조.

자매문기自賣文記 - 스스로 노비가 되는 사람들

김도형 김제시청 학예사

1877년(고종 14) 1월 24일에 공소사(孔召史)·임상문(林尙文)·임상옥(林尙玉)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매문기이다. 임씨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 공소사는 상전택인 장생원의 분부로 여동생이자 딸인 오목(五木)을 30년에 팔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연관된 다른 문서에 의하면 남편 임순팔(林順八)이 죽은 뒤 근근이 연명하던 공씨 가족은 흉년을 당하여 떠돌며 걸식하다가 두 달 전에 남편의 상전이었던 장생원을 찾아와 딸 오목이(五木伊)를 바쳤고 장생원은 그 대가로 15냥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장생원은 얼마 뒤 가족들을 시켜서 오목을 이생원이라는 사람에게 30냥에 팔아버린다. 공씨가 양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노비였더라도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양민이었고 장생원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목숨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은 남편의 옛 상전인 장생원밖에 없었다. 장생원은 겉으로는 과부 공씨의 어려움을 보고 후의를 베푸는 선량한 상전의 모습을 취하였지만 뒤로는 인신매매 중개를 통해 15냥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와 아들들은 한자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 매매 가격이 30냥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서는 유학(幼學) 이길하(李吉夏)가 작성하였고 한량(閑良) 김영국(金永國)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오목은 14세, 임상문은 19세, 어머니 공씨는 57세였다. 오빠인 임

씨 형제와 어머니 공소사의 이름으로 각각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소사는 오른손의 모양을 임상문은 왼손을 그려 수결(手決)을 대신하였다.

*자매문기(自賣文記)는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이 흉년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노비로 파는 문서를 말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남편이 아내를 파는 경우도 자매문서로 통칭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민이 노비가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였고 자매를 하게 되는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결(手決)은 자필 서명인데 하층민들은 문서에 자신의 손이나 손가락 마디를 그려서 이를 대신하였고 양반가의 여성들은 도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소사(召史)는 ‘조’라고도 읽었는데 성(姓) 아래에 붙여서 양민의 아내나 과부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사진 출처 : 전북대박물관 소장 고문서(관리번호 고17862)



벽송정

정여창

바람결에 부들은 가볍게 흔들리는데
 사월 화개에는 보리가 벌써 익어가네
 두류산 천만 골짜기를 남김없이 구경하고
 외로운 배로 다시 섬진강을 내려가네

風蒲獵獵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壘
 孤舟又下大江流

위의 시는 일두 정여창이 남긴 몇 안되는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정여창은 1489년 4월에 문인인 탁영 김일손과 함께 함양에서 출발하여 산천, 천왕봉에 오른 뒤 하동으로 내려와서 하동 악양호(현 동정호)에서 뱃놀이를 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첫구는 도연명의 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아마도 도연명처럼 은둔하여 살고 싶었던 마음이 첫구부터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드러운 부들 잎들이 솟아나 바람에 살랑이고, 보리가 익어가는 사월, 친한 친구와 함께 두류산(지리산)을 굽이굽이 다 구경하고 하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곤 이어서 섬진강에 배를 띄워 놓고 물결 따라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고, 가급적 돌아다니기를 삼가는 시기에 두 분의 유유자적함이 너무나 부러운 시기입니다.

정 훈 군산대학교 교수

흑백 사진 속 전라북도(정읍 - 1) 22

종걸 스님 동국사 주지



「조선 전북 정읍군 헌병대 근무 기념, 대지(帶紙) 사진, 25cm x 150cm, 1910년대

〈전주부성 이야기〉는 21회 연재로써 마감하였습니다. 22회부터는 구한말에서 해방까지 전라북도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사진자료를 연재합니다. 각 시군별로 100년 전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전라북도의 옛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빛바랜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전라천년을 함께 꿈꿔 보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읍시의 자료로 첫 장을 열겠습니다.

두꺼운 사진 대지(帶紙)에 부착된 정읍헌병대 기념사진이다. 뒷면에는 붓글씨로 ‘조선 정읍군 헌병대 기념’이라 적혀 있다. 건물의 위치는 1910년대 정읍향교 양사재로 추정된다. 사진 속 인물은 총 4명이며 모두 헌병들이다. 사진 뒷면에 ‘소록(小鹿, 새끼 사슴)’이란 글씨가 있다. 일제의 조선 헌병통치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구곡 각운 선사

김방룡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선학회 회장

조선 초 전북의 고승으로 지난 호에 부용 영관(芙蓉靈觀, 1485~1572)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보다 앞서 여말선초에 활약한 구곡 각운(龜谷覺雲, 생몰년 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곡 각운은 지난 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1764년 채영(采永)이 간행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에 의하면, 임제로부터 18대손인 석옥 청공(石屋淸琇)에게 고려 말 태고 보우가 선법을 받아서 그것이 '환암 혼수→구곡 각운→벽계 정심→벽송 지엄→부용 영관'을 거쳐 휴정과 선수에게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환암 혼수와 구곡 각운의 법계가 과연 태고의 법을 이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환암 혼수와 벽계 정심이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곡 각운은 남원 출신으로 속성은 유씨(柳氏)이다. 고려 공민왕 2년 봄에 공민왕이 찬영(燦英)을 왕사로 삼으려 하자, 정몽주가 “부처의 가르침은 친척을 하직하고 남녀 사이를 끊고 동굴에서 홀로 앉아 풀잎으로 옷을 삼고 나무뿌리로 양식을 삼으며 적멸함을 관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으니 어찌 평상의 도라 하겠습니까?”라고 반대하였다. 공민왕이 이에 굴하지 않고 찬영을 왕사로 삼으려 하였으나, 좌상시 윤소종이 궁전에 엎드려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찬영이 왕사가 되질 못했다. 이러한 일이 있자 구곡 각운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은둔하였다고 전해진다.

구곡 각운의 구체적인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그의 도행을 숭상하여 「달마절로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와 「보현육아백상도(普賢六牙白象圖)」를 그려서 각운에게 하사하고, 「구곡각운(龜谷覺雲)」이라는 닉자를 손수 글씨로 써서 그의 호를 삼게 하였고,

「대조계종사선교도총섭승신진승근수지도도대선사(大曹溪宗師禪敎都總攝崇信眞乘勤修至道都大禪師)」라는 법호를 내렸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각운은 달마의 선사상과 화엄의 보현행에 남다른 승려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 말의 대유(大儒)였던 이색(李穡)은 각운에 대하여 “대저 구곡은 양반의 후예라 타고난 기질이 벌써 보통 사람과 달랐고, 도학으로 닦은 공부가 또한 완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달마의 마음으로 보현의 행원을 따랐습니다.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원리를 삼았고, 그의 호(號)를 살펴보면 장육(藏六)을 모든 해동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자연스러웠고 그의 마음은 담담하였으니, 본시 물질을 물질로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은사(恩賜)를 받은 것은 요행이 아니요,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구곡 각운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남원의 승련사(勝蓮寺)이며, 해인사의 말사인 영원사 상무주암에도 머물렀고, 또한 순창 구암사(龜巖寺)를 중창하기도 하였다. 각운이 머물렀던 승련사와 구암사의 현재의 사격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여말 선초 당시 두 절의 사격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승련사는 현재 남원시 산동면 식련리에 있는 조계종 소속의 비구니 도량이다. 오랜 세월 동안 폐찰이 되었던 것을 1980년대 후반에 송담·경현 등이 옛터를 복원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웅전과 관음전 및 선원과 요사채 등이 갖추어진 사찰로 변모하였다. 『동문선』 72권에 수록된 이색의 「승련사기」에 의하면, “절은 남원부와는 동북편 30리 거리에 있으며, 옛 이름은 금강사(金剛寺)였는데, 어느 시대 창건된 지는 알 수 없다. 홍혜국사(弘慧國師) 중궁(中互)



남원 승려사



순창 구암사

이 중창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줄암 연운(拙菴衍雲)이 현판을 ‘승려사’라 고치고 1325년(을축, 충숙왕 12)~1361년(신축, 공민왕 10)까지 중창을 마쳤다. 불전·승무(僧廬)·선당(膳堂)·선실(禪室)·객실·곳간·부엌 등 칸 수를 계산하면 모두 1백 11이며, 불전 기구와 일상 쓰는 물건이 하나도 완비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다 줄암의 바랑에 모은 재물과 종한의 애쓴 힘으로 이룩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줄암에 의하여 중창된 승려사는 당시 대단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제-태고법통설’에 의하면 국곡 각운의 스승이 환암 혼수라 밝히고 있으나, 이색은 위의 줄암 연운이 국곡 각운의 스승이라 말하고 있다. 「승려사기」에는 “1358년(무술, 공민왕 7)에 줄암이 열반하면서 이를 이어 친족으로는 조카가 되고 불법으로는 후계자가 되는 각운선사에게 나머지 일을 부탁하였다. 바깥답을 각운이 1363년(계묘, 공민왕 12)에 쌓으면서 불사를 마무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승려사의 중창불사가 줄암과 각운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며, 각운의 법이 환암이 아닌 줄암으로부터 이어졌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줄암과 각운은 당시 남원 지방의 명문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승려사기」에는 “줄암의 성은 유씨(柳氏)요 문정공 유경(柳敬)의 증손이며, 감찰대부 정(靖)과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요, 판밀직사사 이준비(李尊庇)의 외손이다. 학수 사선(學首四選)에 참여하고 과시(科試)에 나가서 갑과에 합격하였고, 명산에 두루 머물러서 불도의 명예가 성하였었다. 각운은 줄암의 조카로서 학문이 깊고 행실이 높으며 필법이 일세에 절묘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청출어람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색의 이 같은 기록은 각운이 공민왕 당시 얼마나 위대한 고승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각운은 1392년(태조 1)과 태종 때(1400~1418)에 순창 구암사를 중창한다. 구암사는 순창군 북흥면 봉덕리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의 말사이다. 구암사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바로 각운이며, 당시 절터는 지금의 구암폭포 부근이었다고 한다. 각운에 의하여 중창된 구암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이후 화엄과 선사상을 크게 떨친 설파 상언(雪坡尙彦, 1707~1791)이 머물면서 18세기 화엄과 선의 중흥을 이끌게 된다. 구암사에서 백파 공선과 석전 박한영 등이 배출됨으로서 구암사는 조선 후기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구암사의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국곡 각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줄암 연운은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13세 각진 복구(覺眞復丘, 1270~1355)의 제자이다. 따라서 국곡 각운은 각진 복구와 줄암 연운을 잇는 송광사(수선사)의 보조 지눌의 법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색의 문도이자 불교계의 승려와 교류하였던 이승인(李崇仁)은 또 환암 혼수와 국곡 각운을 동일하고 ‘조계의 의표(儀表)’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곡인 환암의 제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17-18세기에 와서 국곡의 법계가 뒤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국곡이 화엄과 선에 밝았던 고승임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곰소항의 풍경, 맛있는 추억이 되다

고 윤 정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석사과정

곰삭은 정이 담긴 곰소항

곰소는 냄새부터가 남다르다. 해풍에 실어오는 짭조름한 갯가 냄새가 초입부터 진동한다. 굳이 묻지 않아도 곰소라는 것을 누구라도 금세 눈치를 챈다. 그래서일까. 첫갈하면 곰소가 먼저 떠올려진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멋진 풍경 하나쯤은 담아두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 풍경의 소재가 될 만한 곳이 바로 곰소다. 이곳에서는 삼류소설 같은 삶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시인 손세실리아는 <곰소댁>에서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역력스러운 어부 아내를 통해 질펀하게 표현하고 있다.

“뱃놈 시절 계집질로 뭉치든 탕진하고 / 노름방에 홀랑 갖다
바친 서방 덕에 / 새새틈틈 갈라 터진 손으로 / 물경한 내장 그
악스레 훑는다는 / 수협 공판장 일용직 잡부 곰소댁 / 하루도 잘
날 없는 멍꽂에 / 신선파스 도배하듯 붙이며 / 조강지처는 맷구
럭, 첩은 좇구럭 / 구시렁거리다 재차 쥐어 박한다는 / 그 뉘두
리엔 소금기만 간간하는데…….”

격포에서 해변 길을 따라 구불구불 돌아나가면 변산반도 한 귀퉁이에 곰소항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젓갈로 손꼽히는 곰소젓갈단지는 소박한 어촌 풍경과 천일염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부안 여행지중의 하나다. 칠산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을 곰소 천일염으로 절여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곰소젓갈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양념에 버무린 젓갈이 즐비한 시식 코너는 방문객의 입맛을 연신 다시게 만든다. 곰소젓갈축제장에서는 어찌면 공짜 젓갈을 한보파리 챙길 수 있

는 행운도 얻을 수 있다.

곰소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다, 웅연조대(熊淵釣臺)

곰소라는 지명은 곰소 일대 해안의 형태가 곰처럼 생겼으며, 곰섬 앞바다에 깊은 소(沼)가 존재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곰소를 ‘웅연(熊淵), 웅소(熊沼)’라고도 불렀다. 이 소를 ‘열운개’라고 하는데, 칠산바다 수호신인 개양할미가 이곳을 건너다가 무릎까지 빠졌다는 전설이 있다. 이를 패섬하게 여긴 개양할미가 행주치마에 돌맹이를 담아 메워버렸단다. 그러자 부안에서는 가장 깊은 바다를 가리켜 ‘곰소 둥벙¹’ 속처럼 깊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지금의 곰소항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항구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섬이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가 착취한 농산물과 군수물자를 실어낼 목적으로 방조제를 쌓아 항구를 만들었다.

진서면 연동 ~ 범섬 ~ 곰섬 ~ 작도를 잇는 방파제를 쌓아 도로를 내고 육지와 연결했다. 인근 줄포항을 수탈 기지로 이용했으나 토사가 쌓이면서 제 구실을 못하자 곰소로 항구를 옮겼다. 범섬(虎島)과 곰섬 사이의 바다를 막아 어항을 조성하고, 그 북쪽 둥근 호수처럼 생겨난 부지에는 천일염전이 만들어진다.

변산팔경 중 제1경 웅연조대(熊淵釣臺)는 줄포만에서 시작하여 곰소 앞바다에 이르는 서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말한다. 서해바다에 펼쳐지는 고기잡이 어선들의 행진, 그

1 둥벙: ‘웅덩이’의 전라도 사투리.

리고 어선에서 밝혀놓은 등이 물에 어리는 모습과 어부들이 낚싯대를 둘러메고 노래를 부르는 경치를 일컫는다.

서해바다 군사적 요충지, 검모진영(黔毛鎭營)

곰소는 진서면에 속해있다. 진서(鎭西)라는 땅이름은 진영(鎭營)이 있는 서쪽마을이란 뜻이다. 곰소항의 동쪽 구진(舊鎭)마을은 서해바다의 군사적 요충지로 고려시대 이래로 서해를 지키는 수군이 주둔하고 있던 검모진영이 있었다.

곰소 앞바다를 검모포라고 불렀다. 서해바다의 군사적 요충지로 1274년 고려 충선왕(忠宣王) 1년에 여몽동정연합군(麗蒙東征聯合軍 고려군 5천, 몽고군 2만)이 일본을 정벌하러 갈 때, 그 수송선과 전함 900척을 건조했던 곳도 장흥(長興)의 천관산(天冠山)과 이곳 변산(邊山)의 검모포진영이었다. 고려말 우왕 5년에는(1379년) 왜구(倭寇) 50여 척이 이곳으로 침입하여 보안현과 부령현을 점령한 일도 있었던 곳이다.

그 후 1812년(純祖 12)에 검모포진영이 지금의 진서마을 초등학교 자리로 옮겨졌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검모포진영이 있었던 마을을 구진이라 하고, 새로 옮겨진 곳의 마을 이름을 진서리(鎭西里), 또는 신진리(新鎭里)라 하였다. 진서라는 땅이름은 1812년 이후에 역사,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곰소 천일염, 칠산바다 단맛에 빠지다

곰소 소금은 달다. 적당한 짠맛에 뒤끝은 단맛이 난다. 거기에 곰소 갯벌의 뛰어난 토질의 황토는 곰소 소금에 풍부한 미네랄을 선물했다. 봄철에는 인근 지역에서 송림에서 날아오는 송화가루가 곰소염전까지 날아와 송화소금이 생산된다.

사실 곰소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고로 평가받는다. 곰소 염전만의 생산방식 때문이다. 곰소 염전은 소금 결정을 한 번 빼낸 바닷물인 간수를 30% 정도로 맞춰서 사용

한다. 간수에 포함된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 이를 자주 사용할수록 소금에서 쓴맛이 난단다. 이런 이유로 다른 염전과 달리 곰소에서는 한번 사용한 간수는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낸다.

부안지방의 소금은 화염(火鹽)이 주된 것이었으며, 하서면 언독리 일대, 계화 대벌리 일대가 주생산지였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부안현에는 “어량소 2곳, 염소가 1곳, 현의 서쪽에 염창이 있으며 공사염간이 모두 113명인데, 봄가을에 바치는 소금이 1,127석 남짓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에 곰소염전이 생기면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 1938년 일제강점기에 어업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제가 섬을 육지와 연결하면서 간척이 되었고, 염전을 만들기 위한 바닥다지기 공사를 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곰소염전을 운영하는 남선염업은 지역 유지들이 주주가 되어 1946년 90ha 염전을 조성하여 창립해서 본격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진서면 진서리에 자리 잡은 곰소염전은 항구 북쪽에 45ha에 이르는 면적이 9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해방 후 지은 소금 창고와 소금밭은 사진작가의 단골소재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서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가출해 첫사랑의 추억을 더듬어 밭길 닿는 대로 찾은 곳도 곰소염전이었다. 이밖에도 박범신 ‘소금’, 만화 ‘식객’ 등 소설과 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곰소염전은 2007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꼭 지켜야 할 문화유산’에 선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염전이다.

고서에 나타난 한민족 젓갈사랑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바닷고기를 잡아 염장한 젓갈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이다. 세계 어느 민족도 흉내 내지 못했다. 특유의 맛과 유기 아미노산, 무기성분이 풍부하여 김치의 양념이나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



하므로 우리의 식생활과 떼어 수가 없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고구려인들은 술빚기, 장과 젓갈 담그기 등 발효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했다. 고려도경에도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상용하던 음식이 젓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렇듯 젓갈은 예로부터 우리네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밑반찬이었고 필수 메뉴였던 것이다.

우리의 젓갈사랑은 중국의 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5세기경 중국의 『제민요술』에 “한나라의 무제가 동이²를 쫓아 산둥반도에 이르니,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 찾아본즉 어부들이 항아리 속에 생선 내장으로 만든 어장을 넣고 흙으로 덮어두었다가 향기가 생기면 조미료로 먹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젓갈에 담긴 속담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 좁고 잘 토라지고 편협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 부른다. 밴댕이의 특성에서 나온 말이다. 밴댕이는 위

2 동이: 동이족은 중국 동쪽에 사는 이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동이라 불린 여러 민족 중 상당수는 우리 한민족.

낙 성질이 급해 물에 오르기도 전에 그물에서 죽어버리거나 살이 물러서 쉽게 부패한다. 난중 일기에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밴댕이젓을 어머니께 보냈다고 한다. 젓갈 하나로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팔십 노인이 밴댕이를 자주 먹으면 주책을 부린다”는 속담도 있다. 또 밴댕이를 잔뜩 먹고 나서는 외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 그만큼 체력보강에 좋다는 뜻이 되겠다.

옛날 산촌에 “새우젓장수가 들으면 처녀는 중신아비 들르는 것보다 반갑고, 서방님은 장모 들르는 것보다 반가웠다”라는 속담이 있다. 새우젓장수는 부잣집 사랑에 모셔졌고, 젊은 무당을 곱게 단장시켜 슬며시 그 방에 넣어 주곤 했단다. 삼남 지방의 속어에 ‘덤통웃음’이라는 말이 있다. 젓갈을 산 사람들이 덤통을 바라보며 히죽이 웃어 새우젓장수의 애간장을 태우면, 장수는 덤통을 열고 젓국을 더 퍼주었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색한 일없이 잘 지낸다는 뜻이다.

변산반도 한상차림표, ‘곰소젓갈정식’

부안 음식 맛은 곰소 소금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소금이 좋으니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곰소 천일염으로 맛을 낸 구수하게 곰삭은 젓갈은 세월의 깊은 맛을 보여주면서 밥도둑이 따로 없다.

접시마다 민물새우 토하젓, 갈치내장 순태젓, 조기새끼 황석어젓, 바지락 조개젓, 생선내장 창란젓, 꼴뚜기젓, 낙지젓, 어리굴젓, 오징어젓 등 아홉 가지 젓갈이 정갈하고



소담스럽게 담겨 나온다. 이렇듯 수수하면서도 낮익은 평범한 반찬들이 전라도 특유의 손맛이 가미되니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변산반도 여행도 식후경이다. 변산의 자랑거리는 뭍니 뭍니 해도 역시 맛있는 여행이라는 점이다. 가는 곳곳마다 맛집이다. 여행의 백미(白眉)는 별미(別味)라고 하지 않는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먹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게 또 있을까. 낯선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재미는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잃었던 입맛 되찾아주는 곰소젓갈은 변산반도 여행의 또 하나의 별미다.

추억은 언제나 맛있다

상점마다 풀치³를 새끼줄에 엮어 주렁주렁 걸어놓고서

³ 풀치: 풀치는 중간 크기의 갈치를 새끼줄에 엮어 말린 일종의 반건조 갈치다. 갇은 양념을 넣고 졸이거나 구워먹으면 그 맛이 일

햇살에 말리는 진풍경은 정겹기까지 하다. 이곳 사람들은 곰소에만 있는 특산품이라고 자랑스레 말한다. 전라도 출신 중견 탤런트가 ‘수미네 반찬’코너에서 소개한 맛있는 일품요리가 바로 곰소 풀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항구는 쓸쓸해졌지만, 여전히 곰소항의 추억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비좁은 어판장을 둘러보며 비릿한 생선 냄새보다 더 진한 어부들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곰소여행의 또 다른 묘미다.

문병란은 전라도 젓갈은 “아랫목에 고이고이 감춰놓은 사랑 맛이다”라고 했다. 어릴 적 입맛이 없을 때 풋고추 듬성듬성 썰어 곰삭은 크크한 젓갈에 밥 한술 뜨면 한 그릇 푹딱 해치웠다. 젓갈은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자 고향의 맛이였다.

품이다.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

노 기 환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384년(침류왕 1년) 인도의 승려인 마라난타가 진(晉)나라에서 오면서 이때부터 불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는 성왕(523-553년)에서 무왕(600-641년)에 이르는 약 100년간의 일이다. 이 시기에 불교는 백제의 국교로써 활성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로의 역할을 다져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백제의 불교문화는 중국, 고구려로부터 수용하고 신라, 일본으로 전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백제 불교문화의 정점에 있는 곳이 익산 미륵사였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600-641)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 17세기를 전후하여 화재로 폐사된 1,000여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미륵사지는 높이 430m의 미륵산(당시 용화산)을 등지고, 미륵산에서 뿔어 내린 동·서쪽의 능선이 좌우를 겹겹이 감싸고 있으며 앞쪽인 남쪽은 넓은 들과 낮은 언덕이 펼쳐져 있다. 산을 배경으로 앞으로 넓은 들이 펼쳐진 곳에 사찰을 배치하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입지 방법이 한반도에서는 백제 미륵사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입지 방법은 그 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적 건축계획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륵사지는 1974-75년, 1980-1994년의 발굴조사에서 1탑 1금당식 가람 3개가 병렬로 동·서·중원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원에는 중문·탑·금당을 1동씩 두어 1탑 1금당식 가람을 동·서쪽 선상에 나란히 배치하고 강당은 중원 북쪽에 하나만 두고 있다. 동·서원에는 석탑을, 중원에는 목탑을 두어 3탑 3금당을 이루고, 승방은 동·서원 북쪽과 강당 북쪽에 3개소가 있다.

미륵사지 경관과 입지의 진정성

미륵사가 위치했던 지역은 발굴조사에서 백제 때 미륵사의 외곽 배수로가 현재 미륵사지 동·서쪽 경계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륵사지와 주변의 자연경관들은 1400여년전 백제 미륵사가 창건되었던 당시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과 관련된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쌍릉, 오금산성, 마룻지 등의 유적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

미륵사지의 진정성

미륵사 창건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불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국력을 신장하려는 무왕의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 6세기말 백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백제와 신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추진된 서동와 선화공주의 결혼 이야기가 서동요와 서동설화로 전한다.

사리봉영기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중 2009년 석탑 1층 심주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하나이다. 내용은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639년)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과 왕비의 안녕과 중생들의 불도를 기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시주, 석탑의 건립연대 등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미륵사지 유적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삼국유사』의 창건 연기설화 기록은 발굴된 유적의 현황과 일치하여 미륵사의 실체적 진실을 문헌으로 확인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륵사 건축 공간의 특성은 미륵 삼존의 불교 사상적 공



1. 미륵사지 전경(미륵산을 바라보며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실 소장본
2. 수리 후 동북측면

간인 용화산 아래의 미륵하생 세계를, 무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하면서 대규모의 미륵사 가람으로 현실세계에 구현한 것이다. 미륵사 창건은 기울어져 가는 백제사회의 중흥을 위한 국민적 화합과 국력 신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유일의 3탑3금당에 의한 3원 병렬식 가람배치는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예이며 백제만의 독창적 조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륵사지는 무왕이 7세기 당시 백제의 불교사상, 건축기술, 불교예술 등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건립한 사찰로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 터이다. 현재의 미륵사지는 문헌 기록과 발굴 등을 통해 백제 때 창건했던 본래의 장소이며 창건 당시 건립했던 건축물의 하부구조와 일부 건축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미륵사지의 완전성

미륵사가람의 규모는 동서 폭(건물기단외벽 간)이 172.16m이고 남 회랑 남단에서 강당 기단 북변까지 148.2m이다. 미륵사 평면 계획은 한국의 역대 사찰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하게 기하학적 균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사찰건축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나아가 백제인들의 탁월한 문화적 역량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륵사의 문화교류

미륵사에는 목탑 형태를 충실하게 번안한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동아시아 최초이며 최대의 크기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건립 형태와 기술 등은 후대에 신라로 전해져 한국의 독자적인 석탑 중심의 탑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미륵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의 창건은 신라 및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백제의 장인 아버지를 초청하여 신라 기술자 200여명과 함께 3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645년에 완성하였는데 미륵사 중원 목탑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산전사(山田寺/야마다데라)는 1탑 1금당의 배치를 보이지만 강당이 금당과 탑을 둘러싼 회랑의 외곽에 배치되었고, 금당 앞에 석등이 있다는 점에서 미륵사의 중원과 흡사하다. 금당지 및 목탑지 기초부의 판축토나 금당지의 가구기단 등도 미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의 경관 및 입지적 진정성, 미륵사지의 진정성, 미륵사지의 완전성, 미륵사의 문화교류는 익산 미륵사지가 백제 당시 차지했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익산이 고도로써 진정성을 확보하는 유적으로 미륵사지의 역할은 중대하다. 앞으로 미륵사지는 익산 시민의 역사적 상징물로, 문화관광자원의 핵심 유적으로 고도 익산의 상징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미륵사지는 오는 지난 2015년 7월 익산 왕궁리유적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한세기에 걸쳐 우리 곁에 있었던 이웃 화교들에 대해 재조명하는 ‘군산의 화교展-이웃사촌 화교를 만나다’ 기획전전을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기획전전의 전시 주제는 ‘화교, 군산에 오다’ ‘군산에 스며들다’ ‘그들의 삶의 순으로’ ‘짬뽕의 역사를 쓰다’ ‘교육, 전통을 잇다’로 각종 사진과 자료를 통하여 화교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기대가 된다.

원봉연 통신원



무주 석기봉 삼두마애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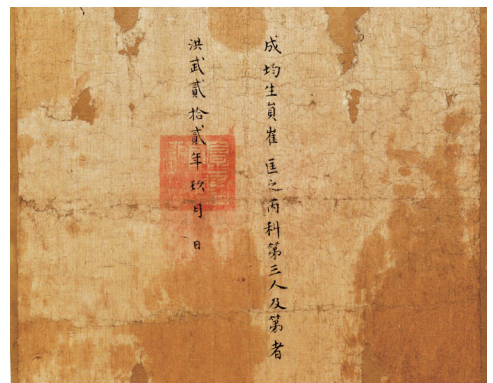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중현 마을에서 석기봉 쪽으로 올라가다 정상을 50m 앞둔 곳에 암벽에 새겨진 삼두마애불이 있다. 바위에 새겨진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기이하게 머리 위에 머리 또 머리를 새긴 형태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높이 6m 폭 2m 정도이다. 연화대좌(蓮花對坐) 위에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는데 왼쪽 발 발가락이 오른쪽 발 정강이 밑으로 돌출 되어 있는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애불 아래 석간수가 나오는 샘이 있고 예전에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한다.

안옥선 통신원



부안 최광지 홍패,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3일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를 보물 제2062호로 지정했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 ~조선 초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1년)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 합격증으로,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지로 발급되어 홍패(紅牌)라 불리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의 이해는 물론 1276년(고려 충렬왕 2년)부터 과거 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고 조선 시대 문서 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게 평가된다. 김영훈 통신원



정읍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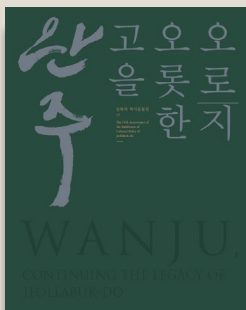
5월 11일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맞붙어 대승을 거둔 그 날이 바로 국가기념일이 된 5월 11일이다. 올해는 정읍 황토현 전적지로 변경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인적이 드물고 상징성도 갖춘 곳으로 참석자도 100명 정도로 제한했다. 올해 주제 “늑두의 함성, 새로운 하늘을 열다”로 개막된 행사는 무장 포고문 낭독과 헌화 분향 등을 통해 시민혁명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안인례 통신원





전시도록 -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박물관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2019년 4월 '선비의 편지'를 주제로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를 개최하였다. 조선시대 편지는 선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우정, 애정 등 '고고하다'고만 생각했던 선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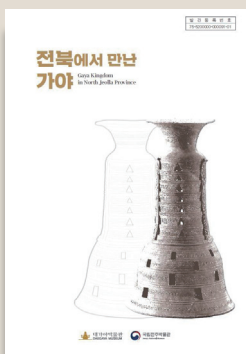
전시도록 - 전북의 역사문화전 13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국립전주박물관과 완주군청은 2019년 6월 「전북의 역사문화전 13」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공동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완주라는 이름의 뜻처럼 온전히 완주의 역사와 완주다움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주로 초기철기시대 청동거울, 마한사람들의 옥 장신구류, 봉림사지 후백제 불교조각 등 완주만의 특색있는 선사~고대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다.



전시도록 -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석정 이정직'

격동의 시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전북 지역의 선비,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전시는 그가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엇을 고민했고, 지향하며 살았는지 살펴보면,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과거의 이정직과 소통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서화 등 두루 통달한 유학자, '통유(通儒)'라 지칭되는 전북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명이었다.



학술도서 - 전북에서 만난 가야



2018년 국립전주박물관과 고려 대가박물관(전북지역의 가야문화)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하면서 고고학 및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뜻을 모아 학술도서 『전북에서 만난 가야』를 함께 발간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지역의 가야문화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500여 년 전 한반도 남부 동서교류의 주축을 담당하였던 전북가야의 모습에서 현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후백제학회 학술대회 1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2020. 06. 26 (금) ~ 27 (토)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

주최 :  전라북도  장수군

주관 : 후백제학회

후원 :  국립전주박물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후백제학회

TEL. 063-469-8963, 010-6472-0962 | FAX. 063-469-4195
55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섯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학예연구실 內

모시는 말씀

전라북도과 장수군, 후백제학회는 장수 침령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장수 침령산성의 특징과 성격을 밝히고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장수 침령산성이 사적이 되는 역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장수군수 장 영 수 후백제학회장 송 화 섭

세부일정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토론자
6. 26(금) 오후 : 침령산성의 특징과 성격(사회 : 최흥선(국립익산박물관))				
12:30~13:00	학술대회 등록			
13:00~13:15	국민의례			
	개회사	후백제학회 회장	송화섭	
	환영사	장수군수	장영수	
	축 사	장수군 의회의장	김종문	
13:15~13:20	장내 정리			
13:20~13:50	1주제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속의 長水郡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홍 (국민대학교)
13:50~14:20	2주제	호남지역 고대산성 현황과 최신 조사 성과	최인선 (순천대학교)	심광주 (한국토지주택박물관)
14:20~14:50	3주제	전북지역 산성 내 석축 집수시설 연구 -침령산성을 중심으로-	조명일 (군산대가야문화연구소)	정의도 (한국문물연구원)
14:50~15:10	휴 식			
15:10~15:40	4주제	유물로 본 침령산성의 운영시기	유영춘 (군산대가야문화연구소)	강원종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5:40~16:10	5주제	장수지역 후백제 문화유산과 그 위상	진정환 (국립광주박물관)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16:10~16:30	장내 정리 및 휴식			
16:30~18:00	총 합 토 론	침령산성은 후백제의 산성인가?	좌장 : 유병하(국립중앙박물관) 발표자 및 토론자	
6. 27(토) 오전 : 침령산성의 보존과 활용(사회 : 진정환(국립광주박물관))				
10:00~10:30	1주제	전북 동부지역 관방유적 현황과 그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유 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0:30~11:00	2주제	침령산성의 정비와 활용 방안	남해경 (전북대학교)	김석희 (문화재청)
11:00~11:30	3주제	침령산성의 사적 지정을 위한 과제	고용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유재춘 (강원대학교)
11:30~11:40	장내 정리 및 휴식			
11:40~13:00	총 합 토 론	침령산성 사적 지정 어떻게 준비할까?	좌장 : 이재운(전주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	
13:00~14:00	폐회 및 점심식사			

• 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술대회 당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문화살롱 회원과 소속

강복남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경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유철선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강명자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박광식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윤영옥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계미향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박연숙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이민석 새만금 개발청
고윤정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박영실 정읍시립박물관 자원해설사	이영숙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박옥희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영일 고인돌박물관 학예사
곽형주 정읍시 향촌문화사학자	박은숙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용엽 진안박물관 운영위원장
권정임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박재순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은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래교수
김경미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서순영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종호 신아출판사 상무
김도형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학예연구사	서정섭 전북대학교 교수	이지복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김동철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서정환 신아출판사 대표	이진우 정읍시 향촌문화사학자
김방룡 충남대학교 교수	손상국 전 JTV 편성제작국장	이천승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성진 원광보건대학교 외래 교수	송민찬 평화문화연구원장	이철량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세천 전북대학교 교수	송병섭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이태영 전북대학교 교수
김양미 고창무장초등학교 교사	송화섭 중앙대학교 교수	이현배 손내옹기 대표
김연수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신정숙 전주시민	이형성 전남대학교 학술교수
김유진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심광섭 전주시민	임경숙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승연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장승익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김순석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장	안인례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은숙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안옥선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장현근 북원태학장
김종운 전라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	전정희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지원 부안계화중학교 교사	양순자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정 훈 군산대학교 교수
김진돈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오경후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진정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철배 임실군청 학예사	오향심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조윤수 수필가
김한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 회장	조춘희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김형호 익산시 문화해설사	원봉연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종걸스님 동국사 주지
김혜원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유대성 전주 앵이콩나물국밥집 대표	최명표 문예연구 편집위원
류연봉 전주대학교	유말봉 전북대학교병원 전 간호부장	최효숙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문이화 원광대학교 교수	유종국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지역 통신원

군산시 원봉연(문화관광해설사)	전주시 김혜원(문화관광해설사)	순창군 박재순(문화관광해설사)
김제시 이지복(문화관광해설사)	정읍시 안인례(문화관광해설사)	임실군 강명자(문화관광해설사)
김제시 조춘희(문화관광해설사)	고창군 오향심(문화관광해설사)	장수군 권정임(문화관광해설사)
남원시 최효숙(문화관광해설사)	무주군 김한순(문화관광해설사)	진안군 김동철(문화관광해설사)
익산시 유철선(문화관광해설사)	부안군 고윤정(문화관광해설사)	

신입회원 현황

고양규 전 흥덕향교 전교	성혜숙 여행작가	이현석 장수군청
기호직 전 흥덕향교 전교	신계숙 영신농장 대표	이호근 전 전라북도의원
강신교 전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신계원 성균진사	장미영 전주대학교 교수
강희석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신영남 기산서원 재장	전명식 전 흥덕향교 전교
권용태 한국화가	신용균 전주시민	정대영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권이관 완주군민	신태중 한국로하스식품 창업자	정경량 전주시민
김석기 고창군민	안재운 매산장학회장	정관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양기 고창군 재향군인 회장	양완수 무장면 유도회 회장	정용철 고창주류 대표
김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안후상 고창북고등학교 교사	정일송 고창군총회 회장
김영관 전 고창읍장	오균호 전 전라북도 의원	정성숙 고창군민
김영훈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유석준 흥덕향교 총무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은경 고창군민	유연봉 전주대학교	조복환 전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표
김정님 정읍시민	유 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종현 전 무장향교 전교
김정일 전주시민	윤철수 전 흥덕유도회 회장	조택수 대한유도회 부회장
김태현 전주시민	은동수 전주시민	진철중 전 새마을협의회회장
김효정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이강현 무장향교 총무	차재현 영상의학과 원장
김희수 윤도장 전수교육조교	이공진 대진산업 대표	최고효 하늘마을 펜션 대표
남궁윤 전주시민	이관연 전 흥덕유도회 회장	최우중 전주시청 학예사
남기풍 부안 당산마루 대표	이종길 흥덕향교 장의	한상옥 무장향교 전교
노기환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이중수 전 흥덕향교 전교	한상용 전 상하우체국장
류필상 고흥류씨 시정공 종중회장	이창수 고습원 원장	
백옥중 남원시청	이철우 후백제선양회	

광고



‘살롱salon’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준 지성의 상징이며, 문학 및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평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 정신을 이끌어가던 장소입니다.

우리 전북의 선배들은 근대 시기에 ‘살롱’과 ‘다방’에 모여서 문학과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전북문화살롱’은,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북의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꽃피우는 담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1. 전북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전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찾습니다

2. 문화를 꽃피우는 발표와 토론의 장소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6시, 신아출판사 2층

3.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의 대중화를 지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참여하는 회원들이 함께 이끌어 갑니다

회비를 내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식사합니다

| 전북문화살롱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7년 출범한 전북문화살롱은 월1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6시)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획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와 인물 등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의식 저변에서

전북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전북문화살롱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전북문화의 꽃을 피우는 담론의 장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일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소: 신아출판사 2층 (신아문예대학 강의실)

■ 입회비 2만원(당해년도 연회비 무료) / 연회비 1만원

■ 회비 입금계좌번호: 전북은행 501-13-0441849

■ 연락처: 전북문화살롱 전화 (063)275-4000, 김경미(010-2428-3514)

■ 이메일: jbmunhwasl@daum.net

※ 코로나19로 당분간 월례모임은 중지하고 회보로 대신하겠습니다.